

濟州島 地名 表記의 研究

— 조선 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

吳 昌 命*

— 목 차 —

- I. 序 論
- II. 本 論
 - 1. 감산 지경
 - 2. 강정 지경(도순 포함)
 - 3. 사계 지경
 - 4. 서귀포 지경
 - 5. 온명 지경
 - 6. 중문 지경(색달·대포 포함)
- III. 結 論

I. 序 論

이 글은 조선 후기 제주지역 고문서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특히 한자로 차용·표기한 것)에 대한 연구로서, 고유어를 확인하고 借字表記의 특징을 살펴 보려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문서는 대개 17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고문서에서 확인되는 지명 표기는 『三國史記』나 『高麗史』 등에서 확인되는 고유어 지명의 어휘표기와 성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즉 차자표기법 중에 고유명사표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고유명사표기의 관습에 따라 고유 지명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자로 표기한 것"이므로, 우리 조상들의 문자 표기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지명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고유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뜻에서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에 관련된 고문서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지명 표기가 吏讀표기법에 속하는 고유지명표기가 아니고 단순히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이용한 주사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

- A. 중문리 高在一氏家 所藏文記²⁾
- B. 사계리 綾城具氏家 所藏文記³⁾
- C. 온평리 仁同張氏家 所藏文記⁴⁾
- D. 雍正四年正月日大靜懸案付內需司已上田案中混入私田畚別件成冊(1726년)
- E. 雍正四年正月日大靜懸案中有文券混入私田畚別件成冊(1726년)
- F. 雍正四年正月日大靜懸案付內需司奴婢無後已上田畚陳起打量成冊(1726년)
- G. 雍正四年正月日大靜懸案付內需司奴婢無後已上田畚陳起打量成冊(1726년)
- H. 雍正肆年拾貳月日大靜懸內需司無後奴婢已上田畚折價放賣庫員落種數及買得人姓名并錄成冊(1726년)⁵⁾
- I. 光武四年大靜郡各公土調查成冊(1900년)

- 1) 이기문(1991 : 487, 489)은 '한밭'을 '大田'으로, '새터'를 '新基'로 번역하여 音讀하는 것은 漢譯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고대의 釋借表記(예 : 買忽 一云 水城, 水谷城縣 一云 買且忽 『三國史記』 권37, 고구려지명)와는 다른 漢譯名 표기로 보았다. 반면에 허용(1974 : 34)은 '한밭'을 '大田'으로 읽는 것과, '습리'를 '裡'로 표기하고는 '이리'로 읽는 것은 固有名詞 표기의 버릇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 2) 이 文記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창석(1993)의 "조선 후기 제주도 田畚文記의 연구 - 고재일씨 소장문기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3호)를 참고하면 된다. 본문의 예문은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 3) 이 文書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창석(1994)의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탐라문화』 14호)를 참고하면 된다. 본문의 예문은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 4) 이 文記들에 대한 연구는 김지홍(1986)의 "溫平里 古文書 研究" (『탐라문화』 6호)를 참고하면 된다. 본문의 예문은 위 논문을 참고하였다.
- 5) 이상 6건의 고문서 내용에 대한 연구는 강창용(1991)의 "18세기 濟州 內奴婢의 土地 所有" (『濟州島史研究』 창간호)를 참고하면 된다.

- J. 光武四年旌義郡各公土調査成冊(1900년)
- K. 光武四年庚子正月日各公土調査成冊(1900년)
- L. 光武五年申丑三月日各公地松木雜木調査成冊(1901년)
- M. 光武五年申丑三月日各浦魚基網 及魚藪口文成冊(1901년)
- N. 嘉慶拾肆年己巳參月初貳日都許文(1809년)

위 자료에서 확인되는 제주도 지명의 한자 표기를 수집, 정리하고 그것을 행정 마을별, ㄱ·ㄴ·ㄷ... 순으로 다시 나누어, 각각의 표기가 나타내는 어형과 의미를 밝히고, 문법적·음운론적인 정보까지도 캐내어 밝히려고 한다. 이들 문서에 나타나는 지명 표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지도를 참고하도록 한다.

- 『耽羅巡歷圖』(1702)의 '漢拏狀囑'⁶⁾
- 『耽羅古地圖』(1709, 목판본, 규장각 소장)
- 『濟州三縣圖』(18세기 전반, 규장각 소장의 『海東地圖』의 한 부분)
- 『濟州三邑都摠地圖』(18세기?)
- 『濟州三邑全圖』(영조시대?, 규장각 소장)⁷⁾
- 『濟州三邑全圖』(19세기?)⁸⁾
- 『濟州地圖』(1899, 규장각 소장)
- 『旌義地圖』(1899, 규장각 소장)
- 『大靜地圖』(1899, 규장각 소장)⁹⁾
- 『旌義郡地圖』(1899, 규장각 소장)
- 『大靜郡地圖』(1899, 규장각 소장)¹⁰⁾

6) 이 지도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영인(1993)한 『耽羅巡歷圖』에 들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7) 이 상의 세 지도는 『서귀포시의 어제와 오늘』(1994)에 영인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8) 이 지도는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박용후, 1992)에 영인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9) 이상 세 지도는 『邑誌』(1983, 아세아문화사) 6 '제주도'편에 영인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10) 이상 두 지도는 『서귀포시의 어제와 오늘』(1993)에 영인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II. 本 論

1. 감산 지경

(1) 甘山 (감산)

- ① 同人田在甘山南便長旨員皮牟貳拾貳斗付只是道〈高昶敬處相換明文(1786)〉 / 위 사람의 밭에 있는 감산리 남쪽 진드르 지경의 걸보리 스물 두 말 부치기이고.
- ② 右衿記長旨員任石實處買得田皮牟貳拾斗付…〈高昶敬處衿記(1768)〉 / 위의 밭은 진드르 지경의, 임석귀에게서 買得한 밭인 걸보리 스무 말 부치기를….

예 ①에서 확인되는 甘山(감산)은 지금의 안덕면 감산리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감산리의 지명은 감산리 동쪽, 일주도로변 위쪽에 있는 산이 흙이 붉고 모양이 감(柿)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 그래서 옛문헌에도 '감산'의 한자표기로 甘山〈『세종실록』 세종25년 정월 丙寅조(1443) ; 『濟州三邑都摠地圖』(18세기?) ; 『제주군읍지』(1899), 紺山〈이원진, 『耽羅志』(1652) ; 이형상, 『耽羅巡歷圖』(1702) ; 『耽羅古地圖』(1709), 柑山〈『濟州邑誌』(1789이전?) ; 『濟州大靜旌義邑誌』(179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감산리에 있는 '감산'은 '신산오름(神山岳·神山峰)' 또는 '신산(神山)'으로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감산'의 '감'은 신(神) 또는 神聖한 곳을 뜻하는 북방어 '감·검'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중·근대국어 자료에는 이와 관련되는 '고마' 또는 '고마ᄃᆞ'가 확인된다.

敬 고마 경, 일심 경<신합, 하:1> / 虔 고마 건<신합, 하:3> 飲 고마 흙<신합, 하:9>

그 고마ᄃᆞ야 레도ᄃᆞ샤미 이러ᄃᆞ더라 = 其見敬禮 | 如此ᄃᆞ더라<번소 9:42>

한편 『龍飛御天歌』(3:15)에 熊津(지금의 公州)을 '고마ᄃᆞ'라 하였는데,

11) 진성기(1975), 『남국의 지명유래』, 제주민속연구소, p.128.

한글학회(1984), 『한국의 지명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 p.386.

12) 이러한 주장은 현명효(1990:35-36), 김종철(1995:139-140)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마(熊)’는 『三國遺事』에 나오는 檀君의 어머니를 뜻한다. 이로 볼 때 ‘감·검’은 북방계의 언어이며, 神聖한 곳, 북쪽 등을 뜻한다. 제주도 지명에 이런 계통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현평효(1990: 35-36)에서도 지적되었다.

결국 안덕면 감산리의 ‘감산’의 ‘감’은 ‘神聖한 곳’이란 뜻으로 보아야 하며, ‘신산오름(神山岳), 신산(新山)’ 등은 혼독자 표기로 된 이름이고, ‘甘山, 紺山, 柑山, 柿山’ 등의 ‘감’을 먹는 감(柿)으로 잘못 인식한 혼독자 또는 단순한 음을 빌린 음가자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山의 훈은 ‘되’(되 爲山<훈만·원, 해례: 25>)이고, 山을 뜻하는 제주말은 ‘오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山을 ‘산’으로 읽는 독법은 후대의 한자음식 독법이라 할 수 있다.

(2) 長旨 (진믈르 > 진믈르)

위 예문 ①과 ②에서 확인되는 長旨는 지금의 안덕면 감산리에서 대평리로 넘어가는 긴 고개인 ‘진믈르 > 진믈르’의 한자 표기이다. 長의 훈 ‘길’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진’이 구개음화된 음 ‘진’과 旨의 훈 ‘믈르’(旨 믈르 지<類合>(나손본)의 변화음 ‘믈르’가 결합된 표기이다. ‘진믈르’는 이외에도 서귀포시 중문동, 표선면 토산리, 조천읍 조천리, 서귀포시 토평동 등 제주 전역에서 확인된다.

2. 江汀 지경(도순 포함)

(1) 江汀

- ① 江汀好音所地員番貳片合租種壹斗付只…別給爲去乎<高允重處別給(1697)> / 江汀 흙바지 지경의 논 두 필지를 합한 법씨 한 말 부치기의 논, …을 別給하였으니.
- ② 江汀員二十負田柳春興現納其祖父亦康熙壬子二月日呈官成置文券<D(1726)> / 江汀 지경의 스무 짐의 밭은 유춘흥이 세금을 내고 있음. 그의 할아버지가 康熙 壬子年 2월 일에 관에 올려서 文券을 작성하여 둠.
- ③ 江汀里內員皮牟貳石付<長婦姜氏處別給(1731)> / 江汀 이내왓 지경의 걸보리 두 섬 부치기.
- ④ 江汀里內矣買得田皮牟貳斗付只<N(1809)> / 江汀리 안에, 내가 買得한 밭인 걸보리 두 말 부치기.

江汀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의 한자 표기이다. 오늘날 江汀은 강정동의 마을 이름으로 불리지만,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대가래천(大加來川, 또는 江汀川) 서쪽 주변지역, 곧 오늘날 '더넛동네'로 불리고 있는 지역을 가리켰다.¹³⁾ 예문 ①-④와 『耽羅巡歷圖』(1702), 『耽羅古地圖』(1709) 등에서 加來川 하류 일대를 '江汀浦'라 하였으니, '江汀'의 표기는 최소한 17세기 말 이전에 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중종실록』(5년 7월 10일: 1510)에 '加內浦'가 확인되므로, 江汀은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江의 훈독자 '강'과 汀의 훈독자 '정'(汀 물갯 덩<신합, 상:6>)의 한자 표기이다. 한자 표기 그대로 '물가 주위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江汀이라는 이름은 원래 '물갯, 물갯'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인데, 오늘날은 그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의 『濟州邑誌』에는 '江汀里(東距四十七里民戶九十六 男一百九十九 女二百五十七)'로 표기되었고, 1858년의 호구단자에서 '大靜縣…第一左面第一加來里'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그리고 동일한 문서에 加來里, 江汀里內(강정리 안), 內江汀(안강정), 加內(더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江汀里와 加來里의 이름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까지만 해도 오늘날의 江汀里에는 이들은 자연 마을로 각기 독립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899년의 『대정군읍지』에서 다시 江汀里로 표기되고, 이후 계속 법정명 또는 행정명으로 불리고 있다.

(2) 加內 (더내)

- ① 加內員田十負內起二負金振海陳八負孫致安(E(1726)) / 더내 지경의 밭 열 집 안에, 두 집은 김진해가 새로 경작하고, 여덟 집은 손치안이 묵히고 있음.
- ② 加內矣高致隱處相換田皮牟參斗付只(N(1809)) / 더내 지경의, 내가 고치은에게 相換한 밭인 걸보리 세 말 부치기.

加內는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큰내' 서쪽 지역에 있었던 '더내 / 더느'마을 또는 마을 주위에서 흐르는 강 이름의 한자 표기이다. 加의 훈 '더'와 內의 훈 '내 / 느'가 결합한 한자 표기이다. 加內의 표기는 『중종실록』(5년 7월 10일: 1510년)의 '金義中 上

13) 江汀里(東距四十七里 民戶九十六 男一百九十九 女二百五十七) / 大加來川(東距五十里自漢孳流入江汀前洋 『濟州邑誌』(大靜縣誌)

疏'에 '加内浦'¹⁴⁾,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加内大川과 加内小川, 1709년 제작의 『탐라지도』와 18세기 전반 제작의 『海東地圖』(濟州三縣圖)는 大加内村, 小加内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초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원진의 『耽羅志』(1653)에 '大加來川(在縣東五十里)', '小加來川(在縣東五十二里)', '東海(城內有客舍軍器庫 正德庚午移加來防護所于此遮歸有營差旌帥一人東海只有隊正一人)', 『濟州三邑全圖』(영조시대?)에 '大加來川, 小加來川' 등 '加來'가 확인되며, 加來防護所를 東海防護所로 옮긴 연대가 1510년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16세기 초 이전부터 '加内'와 '加來'를 混用하여 표기했다는 것이 되며, 加内와 加來는 동일한 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종실록』에 나타나는 '加内浦'가 오늘날의 江汀浦를 가리키는지는 불명확하나, 江汀의 옛이름인 '더내'가 일찍부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 오늘날도 '더넛동네 / 더눗동네'라고 부르는 것으로 볼 때, '더내 / 더느'는 적어도 500여년 전부터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내 / 더느'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더'는 '더ㅎ-'(加)의 '더'인지 부사 '더'(愈, 加)인지 확실하지 않고, '내' 또한 川 또는 '땅'을 뜻하는 지명접미사인지 확실하지 않다.

(3) 古上磊 (고상머들)

- ① 古上磊矣祖上衿得田三庫合皮牟拾斗付只(N(1809)) / 고상머들의, 나의 조상 이 깃득한 밭 세 곳을 합한, 걸보리 열 말 부치기.

- 14) 自大靜東距加内浦二息 / 大靜縣에서부터 東으로 2息(약 60里) 거리에 있는 加内浦 『중종실록』(5년 7월 갑자)
- 15) 이 지역 일대의 포구 이름의 유래와 변화에 대한 것은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필자가 확실하게 구명하지 못했지만, 문헌 등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잘못 이해되는 것이 많다. 한 예로, 이원진의 『耽羅志』에 의하면, 金索浦는 '在縣東四十里'에 있고, 索浦는 '在縣東五十七里'에 있다고 하였고, 大加來川과 小加來川은 각각 '東五十里'와 '東五十二里'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형상의 『耽羅巡歷圖』에 의하면, '大浦→江汀浦→金索浦→塞水(塞水浦)' 순으로 표기되어 있고, 『濟州邑誌』(1780?)에 의하면 大加來川은 江汀 앞바다로 유입되고, 小加來川은 邊水(갯물) 앞바다로 유입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濟州三邑都總地圖』(1800년대?)에 의하면, 星川이 하류 일대의 개(浦)는 星川浦, 大浦村의 동남쪽 바닷가는 大浦, 石宋村(돌송이) 서남쪽 바닷가 일대는 東海浦, 石宋村 동남쪽 바닷가 일대는 乾浦, 江汀川(큰내)의 하류 일대는 江汀浦, 강정동 '썩은섬' 일대는 金索浦, '썩은섬'과 法汗浦 사이에 있는 개는 甘水浦라고 기재되었다.

- ② 古上磊矣買得田皮牟貳斗付只(N(1809)) / 고상머들의, 내가 買得한 밭 걸보 리 두 말 부치기.

古上磊는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북쪽에 있는 들인 '고상머들'의 한자 표기이다. 古上은 '고상'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磊'는 '돌이 무더기로 있는 곳' 또는 '바위너설'을 뜻하는 제주도방언 '머들, 머홀'의 혼독자 표기이다. 제주도방언의 '머들, 머홀'은 중세국어의 '머홀-'(險, 礪)의 명사형으로 보인다.¹⁶⁾

(4) 廣水 (넙은물 / 넙은물)

- ① 廣水矣外祖上衿得番四片番組種查斗付只(N(1809)) / 넙은물 지경의, 外家 조상으로부터 갖득한 논 네 파니 범씨 한 말 부치기.

廣水는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논케왓' 동쪽에 있는 물인 '넙은물 / 넙은물'의 한자 표기이다. 廣은 '넙-'의 관형사형 '넙은' 또는 말음 'ㄴ'이 생략된 '넙으-'의 혼독자 표기이고,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넙은물 / 넙은물'은 제주도 여러 지역 지명에서 확인된다. 이형상의 『耽羅巡歷圖』에는 塞水(막은물), 1709년의 『耽羅古地圖』에는 塞水村, 18세기(?) 경의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塞水村, 金索浦로 표기되어 있고, 이원진의 『耽羅志』(1652)에는 塞浦(在縣東五十七里)로 표기되어 있다.

(5) 仇奄 / 仇奄夫 / 九奄比 (구암비 / 구럼비)

- ① 仇奄員番十片合十負內(E(1726)) / 구암 지경의 논 열 파니를 합한 열 집 안에.
 ② 仇奄夫矣買得田皮牟捌斗付只(N(1809)) / 구럼비 지경의, 내가 買得한 밭, 걸보리 여덟 말 부치기.

仇奄 / 仇奄夫는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넛각' 서쪽에 있는 곳(申)인 '구암비 / 구럼비'의 한자 표기이다. 주위의 비석에는 '九奄比'로 표기하기도 하였

16) 險 머홀 험<신합, 하:11> / 世事다 구름이라 머홀도 머홀시고<송강-이 16, 성산별곡>
 물건 뜨렌 돌히 머호러 뵈오 모래 힌 여호른 漫漫히 가눗다(水淸石 沙白灘 漫漫)<두해-중 1:28>

으나, 후대의 음가자 표기일 가능성이 많다. 한자 표기로 볼 때 당시는 '구엄 / 구엄비'에 가까운 음상으로 불렸으며, '-비'는 지명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애월읍 어음리의 옛이름 중에 '어린비 / 어림비 / 어름비 / 어림빌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는 '돌언덕' 또는 '돌무더기'의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이 지역에 초가(草家)로 된 암자 아홉 채가 있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6) 内江汀 (안강정)

- ① 内江汀矣買得田皮牟壹石付(N(1809)) / 안강정 지경의, 내가 매득한 밭 걸보리 한 섬 부치기.

内江汀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안강정'의 한자 표기이다. 内는 '안'의 혼독자 표기로, '안강정'은 바닷가 쪽 '강정'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江汀'이라는 뜻이다.

(7) 東海水 (동해물)

- ① 東海水員畝十五片合十負内(D(1726)) / 동해물 지경의 논 열 다섯 파니를 합한 열 짐 안에.

東海水는 지금의 서귀포시 강정동 남서쪽, 월평동 남동쪽에 있는 '동해물'의 한자 표기이다. 東海는 '동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며, '동이물'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東海防護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해'의 음상은 일찍부터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자 표기의 뜻 그대로 '동쪽 바다'라는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8) 馬路田 (물질왓)

- ① 馬路田矣妻邊衿得田皮牟貳石付(N(1809)) / 물질왓인, 내 妻 쪽에서 깃득한 밭 걸보리 두 섬 부치기.

馬路田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북쪽 '물질왓'의 한자 표기이다. 옛날 중산간에서 기르던 '물'(馬)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물질'(馬路)이며, 그 근처에 있는 밭을 일컫는 지명이다. 馬는 '물'의 혼독자 표기, 路는 '질'('길'의 구개음화

된 제주도방언)¹⁷⁾의 혼독자 표기, 田은 ‘밭’의 변화음 ‘앗’의 혼독자 표기이다.

(9) 馬吃川 / 𠵼希川 (마홀내 / 마횃내)

- ① 馬吃川矣買得番四片番組壹斗付(N(1809)) / 마홀내 지경의, 내가 買得한 논 내 파니, 番組 한 말 부치기.
- ② 故勢不得已𠵼希川員祖上傳來耕食番陸片合租種柒升付只(高允重處明文(1737)) /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마횃내 지경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傳來하여 갈아 먹던 논 여섯 필지를 합한 畝씩 일곱 되 부치기(를 報給하니).
- ③ 𠵼希川員番陸片租種柒合付(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마횃내 지경의 논 여섯 필지 畝씩 일곱 홉 부치기.

馬吃川 / 馬希川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서남쪽에 있는 ‘마홀내 / 마횃내’의 한자 표기이다. 馬吃은 ‘마홀’, 𠵼希는 ‘마회’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나, 그 뜻이 ‘마홀, 머홀’(畝)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18세기 말 경의 『濟州邑誌』 ‘大靜縣誌’에서 𠵼希川烟臺(東應邊水 西應大浦)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강정리의 邊水(궂물)연대와 大浦(큰개)연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𠵼希川’은 ‘馬吃川’과 같은 표기이다. 1709년의 『耽羅古地圖』에는 石宋村(돌송이) 남쪽 바닷가를 ‘𠵼訖川浦’(마홀내개)로, 18세기(?) 경의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江汀村과 石宋村 사이에 있는 남쪽 浦를 ‘𠵼訖浦’(江汀浦와 東海浦 사이에 있는 浦로 표시)라고 표시했는데, 이것도 같은 표기로 보인다.

(10) 無九奄 / 無巨於未 / 無仇於尾 / 無仇尾 / 茂九尾 (무구러미 / 무고래미)

- ① 無九奄員番二片合五負(F(1726)) / 무구어미 지경의 논 두 파니를 합한 다섯 畝.
- ② 價本段祖上流來爲有在無巨於未員皮牟貳拾斗付內(高瑞鑑處明文(1770)) / 값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무구어미 지경의 밭 걸보리 스무 말 부치기 안에.
- ③ 價本段舅父前得爲有在無仇於尾員毛皮拾貳斗付只…放賣爲乎矣(高瑞鑑處明文(1734)) / 값은 시아버지에게서 깃득한 무구어미 지경의 밭 걸보리 열 두 말 부치기, …를 報給하되.

17) 路 길 로 俗呼路子 官路途 길 도 徑 길 경 俗呼抄路 즈름길 蹊 길 계<훈몽초, 상:3>

- ④ 父主衿得爲在茂九尾員皮牟拾斗付只…永永放賣爲乎矣<三寸前明文(1741)> / 아버지 財主로부터 깃득한 무구미 지경의 밭 걸보리 열 달 부치기. …를 영원히 放賣하되.
- ⑤ 無仇尾員流來田牟種貳拾伍斗付<都會明文(1816)> / 무구미 지경의 유래왔 보리씨 스물 닷 달 부치기.

無九奄 / 無巨於未 / 無仇於尾 / 無仇尾 / 茂九尾는 지금의 서귀포시 월평동 '연디르' 동남쪽에 있는 들인 '무구러미 / 무고래미'의 한자 표기이다. 이 지역에서는 '물'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물 + 굴/골 + 내미'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평 인근에 있는 '벌레낭도래미'(월평동 '큰 기정' 서쪽에 있는 들)와 추자면 대서리(大西里)에 있는 '다무나미 / 다무내미 / 다루래미 / 따무래미', 제주시 해안동의 '골내미 / 골나미' 등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미 / 내미'는 '넘-/남-(過, 越, 遷) + 이(명사형성접사)'의 구성으로 보인다.

(11) 床同木 (상동남 / 상동낭)

- ① 床同木矣買得畓四片畓租壹斗付內(N(1809)) / 상동남 지경의, 내가 買得한 논 네 파니 뽕씨 한 달 부치기 안에.

床同木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상동남(밭)'의 한자 표기이다.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 床同木은 '상동남 / 상동낭'의 음가자(床同)와 훈독자(木)의 결합 표기이다. '상동남'은 주로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자생하는 '상동나무'를 뜻한다.

(12) 石宋 / 矧宋 (돌송이)

- ① 矧宋員田二庫合十五負內(E(1726)) / 돌송이 지경의 밭 두 곳을 합한 열 다섯 짐 안에.

矧宋은 지금 서귀포시 大川洞에 속해있는 道順里의 옛이름인 '돌송이'의 한자 표기이다. 矧宋은 '돌송'의 훈가자 표기이며, 石의 훈 '돌', 矧의 음독자 '돌', 宋의 음가자 '송이'의 표기이다. '송'에 접사 '-이'가 붙은 것이 '송이'(火山灰가 굳어서 돌맹이같이 잘게 부서진 덩이)¹⁸⁾이다. '돌송이'는 사람에 따라

18) 박용후(1992: 192)는 '송이'는 '송+이'로 분석하고, '송'은 火山灰로 굳어진 것을 말하는 제주방언이고, '이'는 接辭라 하였다.

‘돌생이, 돌송이’ 등으로도 불린다. ‘돌송이’는 15세기에 대정현에 속해있는 자연마을로, ‘石宋里 또는 石宋村’으로 한자 표기되었다가, 이형상의 『耽羅巡歷圖』(1702)와 『耽羅古地圖』(1709), 『濟州邑誌』(정조연간)에는 石宋(村, 里)으로, 18세기 초에 쓰인 田畓成冊에는 石宋으로 표기되고, 『大靜郡邑誌』(1899년)에 ‘도순리(道順里)’로, 다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月坪里 일부를 합하여 ‘도순리(道順里)’로 변화하였다.

(13) 食近旨 (식근므르 / 시근므르)

- ① 食近旨矣買得田粟種柒斗付(N(1809)) / 식근므르 지경의, 내가 買得한 밭 좁씨 일곱 말 부치기.

食近旨는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북쪽, 염돈 남쪽에 있는 들인 ‘식근므르 / 시근므르’의 한자 표기이다. 食近은 ‘식근 / 시근’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고, 旨는 ‘므르’의 혼독자 표기이다. ‘식근 / 시근’은 중세국어 ‘식-’(冷, 寒)의 관형사형 ‘식은’의 표기인지, ‘신다’(載, 駄)의 관형사형 ‘시끈’의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14) 自隱洞 (자은골 / 잔골)

- ① 自隱洞具畓十五片合二負八束內(F(1726)) / 자은골 지경의 논 열 닷 파니를 합한 두 집 여덟 못 안에.

自隱洞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서쪽, 도순동 ‘고지새’ 서남쪽, 월평동 동쪽에 있는 마을인 ‘자은골 / 잔골’의 한자 표기이다. 自隱은 ‘자은 / 잔’의 음가자 표기이다. ‘자은 / 잔’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즌골’이라고도 한다.

(15) 旌義畓 (정의논 / 정이논)

- ① 江汀旌義畓員四片租種壹斗伍升付只(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강정 정이논 지경의 네 필지는 범씨 한 말 닷 되 부치기의 밭.

旌義畓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남쪽에 있는 ‘정의논 / 정이논’의 한자 표기이다. 주변에 ‘정이나’(旌義川), ‘정이나깍’ 등이 있다. 旌義는 ‘정의’(‘정’은 ‘의’의 단모음화)의 음가자 표기이고, 畓은 ‘논’의 혼독자 표기이다. ‘정의

논'은 旌義縣에 소속된 논 또는 정의현에 살았던 사람의 소유인 논이란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6) 走車水 (주거물)

- ① 法還走車水員畚一升落賭錢一兩(K(1900)) / 법환 주거물 지경의 논 한 되치기 : 논을 빌려 부치고 내는 돈 한 냥.

走車水는 지금의 서귀포시 법환동 동북쪽에 있는 물인 '주거물' > 주거물'의 한자 표기이다. '주거물'은 인근에서 솟는 물이 차지 못하고 밍근한 데서 불여졌다든 설도 있으나, 그 북쪽에 '수므르'라는 고개와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수므르'는 '수레므르(車旨)'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이들 지명은 모두 '수레'와 관련이 있는 것이 특이하고, 과거 이 지역은 旌義縣과 大靜縣의 경계 지역이었던 것도 생각해볼 만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17) 靑巨伊 / 靑巨 (청계)

- ① 靑巨伊員畚六負起婢取丹西奴申男田(E(1726)) / 청계 지경의 논 여섯 짐은 계집종 取丹이 새로 경작하고, 서쪽은 사내종 신남의 밭.
 ② 靑巨員畚陸負東水洞西奴本金畚(G(1726)) / 청계 지경의 논 여섯 짐. 동쪽은 물골, 서쪽은 사내종 本金의 논.

靑巨伊 / 靑巨는 지금의 서귀포시 강정동 '정이논각' 북쪽에 있는 논 일대인 '청계'의 한자 표기이다. 靑巨伊 / 靑巨는 '청계'의 음가자 표기이다. 이 지역에 있는 비석에도 靑巨로 표시되고 있다. 한자 표기와 같이 '푸르다'(靑)와 관련이 있는지 단순한 음가자 표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18) 下川間 (알내새)

- ① 下川間矣祖上衿得田皮牽壹石伍斗付(N(1809)) / 알내새 지경의, 내 조상이 깃득한 밭 걸보리 한 섬 닷 말 부치기.

下川間은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서남쪽에 있는 '알내새'의 한자 표기이다. 下는 '아래'라는 뜻의 제주도방언 '알'의 혼독자 표기, 川은 '내'의 혼독자 표

19) 車 술워 거 又音 차<훈몽초, 중:13> / 車 술워 거<왜어, 하:19>

기, 間은 '스이 > 사이'(間 스이 간<신합, 하:47>)의 제주도방언 '새'의 혼독자 표기이다. 서귀포시 월평동의 '알골새'(아랫 쪽에 있는 골짜기 사이), '웃골새'(윗 쪽에 있는 골짜기 사이)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19) 好音所地 (흙바지)

- ① 江汀好音所地員番貳片合租種壹斗付只…別給爲去乎<高允重處別給(1697)> / 강정 흙바지 지경의 논 두 필지를 합한 범씨 한 말 부치기의 논, …을 別給하였으니.

好音所地는 지금의 서귀포시 강정동 '정이논각' 북서쪽 골짜기인 '흙바지'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흙'은 '옴쪽 펜 곳'을 가리키고, '-바지'는 '낮은 지대'의 뜻을 가진 근간요소이다. '-바지'는 서귀포시 월평동 '죽바지'('빛개덕' 서쪽에 있는 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사계 지경

(1) 古介田 (고개왓)

- ① 祖上傳來田是在古介田員粟種貳斗付只田<趙東壁處明文(1770)> / 조상으로부터 전래한 밭인 고개왓 지경의 좁씨 두 말 부치기의 밭.

古介田은 지금 안덕면 사계리 '남선밭' 남쪽에 있는 '고개왓'의 한자 표기이다. 古介는 '고개'의 음가자 표기인데, 의미가 '고개' 또는 '고개'(峴), 高哥(고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田의訓인 '밭 / 밭'은 앞에 온 유성음이 영향으로 '왓'(火田 풀밭 / 풀왓<두해-초 7:17, 두해-중 7:17>)으로 변한 것이다.

(2) 今勿路 (거른길)

- ① 第二中面今勿路里第十四統五戶通德郎具濟國<甲午式戶口單子(1834)> / 제2 중면 거문길 제14통 5호 통덕랑 구제국.
- ② 大靜今勿路里居具濟國<所志(1804)> / 대정 거문길에 사는 구제국.
- ③ 本縣中面今勿路里村人呈營狀辭內<完文(1817)> / 본 縣 中面 거문길에 사는 村人이 올린 營의 狀辭 안에.
- ④ 妻家得田在於今勿路送水員粟種陸刀付田庫<具念祖處相換記(1822)> / 妻家에서 깃득한 밭인, 거문길 送水 지경에 있는 좁씨 여섯 되부치기의 밭 곳.

今勿路는 지금 안덕면 사계리의 옛이름인 '거문질 > 거문질'의 한자 표기이다. 今勿은 『三國史記』(권37, 고구려지명)에 나온다. '黑壤郡一云黃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 景德王改名 今鎮州'(『三國史記』 권37)가 그것이다. 여기서 今勿內郡과 改名의 黑壤郡의 대비에서 今勿과 黑의 대응이 성립된다. 곧 黑을 뜻하는 단어가 今勿(거문)임을 알 수 있다. 今勿은 또다른 改名인 黃壤郡과의 대비도 가능하나 중세국어 '거문' (黑은 거문 씨오<월서 1:22>)과 일치한다. 今勿路도 '거문질'로 불리고 있으므로, 이때의 今勿도 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 이형상의 『耽羅巡歷圖』(1702)와 1800년대의 『耽羅三邑都總地圖』에서 지금 사계리와 덕수리 일대, 사계리 앞바다를 黑路村, 黑路浦로 표기하고 있고, 19세기의 고지도에선 沙溪里, 德修里, 今勿浦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今勿의 뜻은 이 지역의 '흙'이나 '땅'이 '검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山房山을 끼고 있기 때문에 神聖한 땅 혹은 神聖視한 곳이란 뜻의 '감·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多池 / 漢木 (한못)

- ① 多池員牟種家基田參斗付<분재기(?)> / 한못 지경에 있는 보리씨 집터왓 새 말 부치기.
- ② 矣妻邊衿下田庫漢木員皮牟種拾貳斗付<洪仁範處明文(1722)> / 나의 아내 쪽의 뚝으로 내려온 밭 곳인 한못 지경의 걸보리씨 열 두 말 부치기.

多池는 지금 안덕면 사계리 '구룡이' 남쪽에 있는 못인 '한못'의 한자 표기이다. 모두 훈독자 표기인데, 多의 훈 '하-'(多)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한'에 池의 훈 '못'(못 爲池<훈민-원, 해례:26>)이 결합한 것이다. 그런데 '한못'은 '많은 못'이란 뜻이 아니고, '큰 못'이란 뜻으로 생각된다. '한물'(大木)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 고유어의 결합인데, '하-'(大)를 多(하)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漢木도 '한못'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4) 都里池 / 道伊池 (도리못 / 도이못)

- ① 四標段東陳西吳善田南都里池北李榮兌田四標分明田庫…放賣爲去乎<朴世綱處明文(1751)> / 사방의 경계는 東으로 목정밭(陳), 西로 오선의 밭, 南으로 덧리못, 北으로 이영태의 밭이 있어, 四標가 분명한 밭 곳을 …放賣하였으니.

都里池는 지금 안덕면 덕수리 북쪽에 있는 못인 '도리못 / 도이못 / 도로 못'의 한자 표기이다. 都里는 '도리'의 음가자 표기이다. 都里는 道伊(도이)로 표기되기도 한다. '도리못'은 형세가 둥글기 때문에 '도리방석 / 돌레방석'의 '도리 / 돌레'('둥글다'는 뜻)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²⁰⁾, 확실하지 않다. '둥글다'의 뜻으로 보면, 표준어 '도래'('돌레'와 같은 뜻)의 고행인 '도래 / 도리'와 같은 것이 되고, 이는 '돌 + 애'와 '돌 + 이'로 분석된다²¹⁾.

(5) 弄木池 / 龍木池 (농남못)

- ① 叔母主別給是在田庫於弄木池員牟種〈具念祖處明文(1832)〉 / 叔母 主가 別給 한 밭 곳인 농남못에 있는 보리씨
- ② 勢不得已粟田壹庫在於龍木池北邊員粟種陸斗付〈李景森處別給文(1795)〉 / 하 수 없이 조깃 한 곳인 농남못 북쪽 지경에 있는 좁씨 여섯 되 부치기.

弄木池 / 龍木池는 지금 안덕면 화순리 '섯동네' 동쪽에 있는 '농남못 / 녹남못'의 한자 표기이다. 弄 / 龍은 '농 / 녹'의 음가자 표기, 木은 '남'의 혼독자 표기, 池는 '못'(池 못디<百聯抄解 18>)의 혼독자 표기이다. '농남 / 녹남'은 '녹나무'를 말하며, '녹남못'은 '녹나무가 있는 지역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6) 萬達伊 (만다리)

- ① 矣妻邊流來耕食田萬達伊員粟壹斗陸升付只〈朴世綱處明文(1751)〉 / 나의 아내 쪽에서 유래하여 耕食하는 밭인 만달이 지경 좁씨 한 말 여섯 되 부치기.

萬達伊는 지금 안덕면 사계리 공동묘지 부근의 들인 '만다리'의 한자 표기이다. '萬達伊'는 '만다리'의 음가자 표기이고, '만다리'는 '만 + 달 + 이'로 분석된다. 곧 '달 + 이'가 '다리'로 되고, '山 또는 높은 곳의 땅'을 뜻한다.

20) 성산읍 수산리 '큰골' 동남쪽에 있는 둥그런 못(池)도 '도리못'이라 하고, 안덕면 상창리 '감태동산' 남쪽에 있는 둥그런 산을 '도리미'라고 한다.
 21) 訖주씨 紺靑 訖시며 조히 訖시며 붉근 돌애 셋거 訖미샤 조訖샤 分明訖샤미 二十九가시고<법화 2: 13> / 이 술위 술릿바빻 밧 돌이 訖여디도다(這車子切了車網子)<노변, 하: 36> / 訖 도래 세 치오... 밧 도래 訖 치 닷 分이오 二包圓三寸이오... 外圓이 一寸 五分이오<화포 35·36> / 술릿바빻 밧 도리 해 야 디저다... 술릿통엿 구무 부리 도리로 박은 쇠(切了車網子...車銅)<노해초, 하: 32>

‘달’(達)은 『三國史記』地理志의 고구려지명에서도 확인된다. 蘇山縣 本高句麗買戶達縣. ‘만’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7) 犯川 (벗내)

- ① 同人田犯川眞木圓員永爲相換是矣〈具念祖處相換記(1822)〉 / 위 사람의 밭 벗내 참남동산 지경을 영원히 相換하되.

犯川은 남군 안덕면 사계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금 화순리의 옛 마을 형성지인 ‘벗내’의 한자 표기이다. 현지인들은 ‘번내’(각종 지명사전에다 마찬가지로.)라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犯叱浦’(벗개), 『耽羅紀年』(1918년)에 ‘友浦(古名犯叱浦)’의 표기가 나타나므로, 犯은 ‘犯叱(벗)’의 음절말 ‘叱(스)을 생략한 표기이고, 犯叱을 友라 하였으니, ‘벗’의 음가자 표기이다.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벗’은 동사어간일 가능성이 있는데, ‘벗-’(脫)의 뜻인지 ‘번-’(引)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耽羅古地圖』(1709)에는 ‘犯川村’, 『濟州邑誌』(1780?)에 ‘犯川里(東距十三里 民戶四十五 男九十四 女一百二十九)’로 나타나고, 『대정군읍지』(1899)에 和順里로 나타난다. 한편 지금 화순리 앞바다를 이형상의 『耽羅巡歷圖』(1702)에는 ‘犯浦’(벗개)로, 18세기(?) 경의 『耽羅三邑都總地圖』에는 ‘犯川浦’(벗내개)로 표기되어 있다.

(8) 沙溪里 (사계리)

- ① 大靜沙溪里具倫會〈情由(1901)〉 / 대정 사계리 구윤중.

沙溪里는 1780년까지도 今勿路里로 부르다가²²⁾ 19세기 중반 이전에 沙溪里와 德修里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1899년의 『대정군지도』에는 沙溪里, 德修里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9) 刷堂 (쇄당)

- ① 矣外邊祖上田在於刷堂北邊員粟種八升付只田庫〈鄭富贊處明文(1771)〉 / 나의 외가 쪽 祖上의 밭인, 새당 북쪽 지경의 좁씨 여덟 되부치기 밭 곳.

22) 『濟州邑誌』(1780?)

刷堂은 지금 안덕면 덕수리 일대의 옛 이름인 '쇄당 / 새당'의 한자 표기이다. 刷堂은 '쇄당 / 새당'의 음가자 + 혼독자 표기이다.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새로운 당(堂)과 관련된 '새당(新堂), 新堂'으로 불렸었다고 하지만, 이 표기로 볼 때 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당(新堂), 新堂'은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편 18세기(?) 경의 『耽羅三邑都總地圖』에도 지금의 덕수리 지역 일대를 '刷堂村'(쇄당마을?)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09년의 『耽羅古地圖』에는 '黑路村'(거문질마을?)으로 표기되어 있다. 적어도 18세기 초까지는 '거문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의 『濟州啓錄』에 '德修里'가 확인되고, 19세기의 戶籍中草에 '自丹里'가 확인되는 등 이 때까지만 해도 두 세 개의 마을 이름이 혼용되었다.

(10) 上勿路 (웃거문질)

- ① 上勿路員貳合牟種柒斗付<분재기(?)> / 웃거문질 지경에 있는 두 곳을 합한 보리씨 일곱 말 부치기.

上勿路는 지금 사계리 '거문질' 북쪽에 있는 '웃거문질'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上의 혼 '우, 우ㅎ'(웃 상<신합, 상:2>)에 사잇소리가 붙은 '웃'에 음가자 今勿의 약자 '물'에, 路의 혼 '길'이 결합한 것이다.

(11) 送水 (송물 / 송물)

- ① 妻家衿得田在於今勿路送水員粟種陸刀付田庫<具念祖處相換記(1822)> / 妻家에서 깃득한 밭인, 거문질 송물 지경에 있는 좁씨 여섯 되 부치기의 밭 곳.

送水는 지금 덕수리 북쪽, 서광리 '진곤동' 남쪽에 있는 '송물 / 송물'의 한자 표기이다. '송물 / 송물'은 고인 물이 숨어드는 구멍이 있는 지역을 가리킬 때 붙이는 지명이다. 한경면 두모리의 '송물난머들', 안덕면 서광리의 '송물구멍'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上北只 (웃부기 / 웃보기)

- ① 上北只員牟種貳拾斗付內<분재기(?)> / 웃부기 지경에 있는 보리씨 스무 말 부치기 안에.

上北只是 지금 언덕면 덕수리 위쪽에 있는 언덕인 '웃부기 / 웃보기'의 한자 표기이다. '부기 / 보기'는 '언덕 또는 산'과 관련되는 근간요소로 보인다. 언덕면 상천리에 있는 '맞보기, 하네보기' 등에서도 '-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배우리도 『땅이름 속의 우리말』에서 우리의 산 이름 가운데 '복'이나 '불'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며(불악산, 불암산, 복산 등), 이때의 '복, 불'은 '높다'는 뜻으로 보았다. 김종철(1995)도 구좌읍 덕천리에 있는 '복오름'을 '높은 오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언덕', '산', '높다'는 뜻을 가진 '복'에 명사파 생접사 '-이'가 다시 붙은 것이 '부기'로 볼 수 있다.

(13) 水洞 (물통 > 물통)

- ① 四標段東賣者田西水洞南林時星田北小路分明田庫…放賣爲去乎(梁繼欣處明文(1732)) / 사방의 경계는 東으로 판 사람 밭, 西로 물통, 南으로 임시성의 밭, 北으로 작은 길이 분명한 밭 곳을 …放賣하였으니.
- ② 標東林甲曾田西金貞行田南姜呂森田北水洞各標分明而田庫(具雲赫處不忘記(1897)) / 경계는 東으로 임감중의 밭, 西로 김정행의 밭, 南으로 강여산의 밭, 北으로 물통이 있어서, 각 경계가 분명한 밭 곳.

水洞은 지금 화순리 중동네 서북쪽에 있는 '물통 > 물통'의 한자 표기이다. 水는 '물 > 물'의 훈독자 표기이고, 洞은 '통'의 음가자 표기이다.

(14) 眞木園 (참남동산 / 차남동산)

- ① 同人田犯川眞木園員永爲相換是矣(具念祖處相換記(1822)) / 위 사람의 밭 벗내 참남동산 지경을 영원히 相換하되.

眞木園은 지금 언덕면 덕수리 '군물왓' 북쪽에 있는 '참남동산 / 차남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眞木의 眞은 '참'의 훈가자 표기이다. 園은 '동산'의 훈독자 표기이다. '참남동산 / 차남동산'은 '참나무가 있는(또는 많은) 동산'이란 뜻이다.

(15) 泉水 (세미물)

- ① 泉水員牟種拾壹斗付(분재기(?)) / 세미물 지경에 있는 보리씨 열 한 말부 치기.

泉水는 지금 안덕면 사계리 '큰밭'동네 북서쪽에 있는 '세미물 > 세미물'의 한자 표기이다. 泉의 훈 '샘'(泉 십 천 <훈몽초, 상:3>)의 제주도 방언 '세미'에 水의 훈 '물 > 물'이 결합한 것이다.

(16) 柴木田 (칠남밭)

- ① 柴木田員貳合粟種肆升付<분재기(?)> / 칠남밭 지경 두 곳을 합한 좁씨 녀 되부치기.

柴木田은 지금 안덕면 화순리 셋동네, 덕수리 동쪽에 있는 '칠남밭'의 한자 표기이다. '柴'은 '칠'의 음가자 표기이고, 木은 '남'의 훈독자, 田은 '밭'의 훈독자 표기이다. '칠남'은 '웃나무'를 가리킨다. 곧 '칠남밭'은 웃나무가 있는(혹은 많은) 밭을 말한다.

4. 서귀포 지경

(1) 角氏岩 (각시바위 / 각시바우)

- ① 九所角氏岩南粟田三升落賭錢二兩四 <K(1900)> / 九所의 각씨바위 남쪽 조 밭 석 되지기 : 밭을 빌려 부치고 내는 돈 두 냥 네 돈.

角氏岩은 지금의 서귀포시 호근동 동북쪽에 있는 '각시바위 / 각시바우'의 한자 표기이다. '角氏'는 '각시'(妻)의 변음 '각씨'의 음가자 표기이고, 岩은 '바위'(巖은 바회라<석보 6:44>)의 훈독자 표기이다. 근대국어에서도 巖은 '바회'로 나타나므로, '각시바위 / 각시바우'의 '바위 / 바우'는 오래지 않은 음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角氏岩은 氏岩, 妻岩으로 표기되기도 하나, 角首岩, 角秀岩, 角秀岳 / 鶴首巖 등으로도 나타난다. 한자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후대의 고문서, 고지도, 비석 등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妻의 뜻인 '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므로 이 바위가 학(鶴)의 머리 또는 쇠뿔(牛角)의 형상이라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보다 한 여인의 전설이 깃든 바위로 보아야 할 것 같다.

(2) 乞梅 (걸메)

- ① 西紅爐乞梅員番八升落賭錢八兩 <K(1900)> / 서홍로의 걸메 지경에 있는 논 여덟 되지기 : 賭錢 여덟 냥.

乞梅는 서귀포시 서흥동 서남쪽, 호근동 동남쪽에 있는 '걸메'의 음가자 표기이다. 주위에 '걸메목', '걸메케', '걸메동산'이라는 지명이 있다. 박용후(1992: 111-112)는 모슬포의 '걸메물'의 설명에서, '걸메'의 '걸'은 '개울, 도랑', '메'는 '막히다'의 뜻으로 보고, '흐르는 물이 막혀서 이루어진 물'의 뜻인 '걸맨물'이 변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필자도 '걸+메'로 분석하고, '걸'은 '도랑, 개울, 개천'을 뜻하는 중세국어 '걸'²³⁾과 같은 뜻으로 본다. 공교롭게도 '걸메'와 관련된 지명에 '물'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본다. '메'는 중세국어의 동사 '메-'(壅, 塞)²⁴⁾의 영접사파생명사로 볼 수 있다. 곧 '걸메'는 '개울이 흐르다가 막힌 곳' 혹은 '개울이 흐르다가 흙 따위로 매워져서 논이나 밭이 된 곳'이란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지명으로 함덕리의 '걸메못', 모슬포의 '걸메물' 등이 있다.

(3) 大畚 (하논)

- ① 好近大畚寶樓岳草坪三升落賭錢一兩五錢(K(1900)) / 호근 하논 보루미에 있는 풀이 무성한 들판 석 되지기 : 田地를 빌려 부치고 내는 돈 한 냥 닷돈.

大畚은 지금의 서귀포시 호근동 동남쪽에 있는, 큰 논인 '하논'의 혼독자 표기이다. 大의 혼 '하-'(大)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한'(大水 한물<두해-중 1: 58>)에 畚의 혼 '논'(는 爲水田<훈민-원, 해례: 25>)의 결합표기 '하논'에서 자음 'ㄴ'이 탈락한 것이다.

(4) 寶樓岳 (보루미)

- ① 好近大畚寶樓岳草坪三升落賭錢一兩五錢(K(1900)) / 호근 하논 보루미에 있는 풀이 무성한 들판 석 되지기 : 田地를 빌려 부치고 내는 돈 한 냥 닷돈.

寶樓岳은 지금 서귀포시 호근동 동남쪽, 삼매봉 주봉 북쪽 '하논'(大畚)에

23) 수풀과 걸와 殿堂과를 두루 보며= 觀林渠와 及與殿堂형며<농업 2: 48>
그의 能히 ㄴ는 돌기로 거를 밍ㄴ니(子能渠細石)<두해-초 7: 17> / 渠 걸 거<천자광 32>
24) 슬피 브르미 놀뛰는 듯 하니 이제 나르리 비치 메디 아니헝엿도다(慘淡壁飛動 到今色未壞)<두해-초 16: 28>

있는 '보루미'의 한자 표기이다. 둥글고 낮은, 조그마한 화구구(火口丘)를 일컫는데, 보름달 같이 생겼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한다. 寶樓岳이 '보름이오름'을 표기한 음가자 + 음가자 + 혼독자의 구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²⁵⁾, '보루 + 미(山)'의 구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보르미 / 보로미'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정읍 신도리의 '보름이오름'도 산을 뜻하는 '미'에 다시 '오름'을 붙여 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5) 洙伊里川 / 漚伊川 (애이릿내 / 애이내)

- ① 洙伊里川員三庫牟田二斗三升落賭錢三兩四莛五分<K(1900)> / 애이릿내 지경 세 곳의 보리밭 두 말 석 되지는 賭錢 세 냥 네 돈 닷 쫘.

洙伊里川은 지금 서귀포시 정방폭포의 물줄기를 이루는 내인 '애이릿내'의 한자 표기이다. 호근동 북쪽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서, 서홍동과 동홍동의 경계를 이루고 정방폭포로 흘러간다. 洙의 오늘날 한자음은 '예'이지만, 중세국어의 한자음은 '애'(洙 嵬 애<類合>(칠장사본))이다. 伊와 里는 음가자 표기이고, 川은 '내'의 혼독자 표기이다. 고지도에는 漚伊川, 厓列川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애이리'의 어원은 불분명하나, 매룡이과의 바다물고기를 제주도방언으로 '애이리'라 하고, '황매룡이'를 제주도방언으로 '황애이리'라 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이 내(川)는 대개 정방천(正房川)으로 표기되는데, 일반에서는 '洙伊里川(애이릿내)'라고도 부른다.

(6) 牛屯里乙 (쇠돈마을)

- ① 養祖母衿得旌義下牛屯里乙內員皮牟陸斗付只<고재일씨 문기(?)> / 양자간 집의 할머니로부터 갖득한, 정의 아래쪽의 쇠돈마을 안 걸보리 여섯 말 부치기.

牛屯里乙는 지금 서귀포시 효돈의 '쇠돈마을'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지금 孝敦의 옛 이름이 牛屯(쇠돈 / 쇠둔)이고, 牛敦이 孝敦으로 지명표기가 변하

25) 김종철(1995 : 1-215)은 '보름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보름 + 이(접사)'의 구성으로 본 것이다.

26) 제주도 도두동의 바다 지명에 '애여리바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애이리 / 애여리'(매룡이)가 많이 잡히는 바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었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1702)에 牛屯, 1709년의 「耽羅古地圖」에는 上牛屯村, 18세기(?) 경에 간행된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上牛屯村, 下牛屯村, 정조연간의 「濟州邑誌」에는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로, 1899년의 「旌義邑誌」에는 上孝里, 中孝里, 下孝里로 표기되었다. 牛屯(쇠돈)의 '쇠'는 '소' (소 爲牛<훈민-원, 해례:26>)의 제주도방언이고, '돈'(屯)은 마소 따위를 많이 모아 기르는 곳이란 뜻이다. 서귀포시 강정동 북쪽의 염돈(羔屯)과 관련이 있다. 牛屯은 표기상 19세기까지 쓰이다가 孝敦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里乙은 '묵을'의 온전한 표기이다.

(7) 又美 (뽕미)

- ① 又美射場牟田八斗落賭錢十二兩(K(1900)) / 뽕미 射場 지경의 보리밭 여덟 말지기 : 賭錢 열 두 냥.

又美는 지금 남원읍 위미리(爲美里)의 조선시대 이름인 '뽕미'의 한자 표기이다. 又의 훈(又 卽 又<類合>(나손본))의 변화음 '뽕'과 美의 음가자 '미'를 결합한 표기이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1702)에는 '又尾浦'로, 18세기(?) 경의 「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又尾村, '又尾浦'로, 1780년경의 「濟州邑誌」에는 又尾里(自官門西距四十里), 又尾浦(西距四十五里)'로, 1793년경의 「濟州大靜旌義邑誌」에 '爲美烟臺'가, 1899년의 「旌義邑誌」에는 '東爲美里, 西爲美里'로 표기되어 있다.

5. 온평 지경

- (1) 餘乙溫 / 閔雲 / 烈溫 / 與溫 / 溫平 (열운 / 열은 / 온평)

- ① 旌義縣與溫里崔召史<제주제록(도광26년 9월 초9일)> / 정의현 여은리 최초 이
 ② 溫平西川目員田價拾兩捧上<인동장씨 명문55(1887)> / 온평리 서천목 지경의 밭의 값으로 열 냥을 받고

餘乙溫 / 閔雲 / 烈溫 / 與溫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의 옛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餘乙溫'烽燧에서 '餘乙溫(열은 / 열운)', 「耽羅志」(1652년)에 '閔雲浦'(在縣東二十里), 토지대장에 '烈溫'이 보인다. 三姓이 혼인

한 못(婚姻池)과 관련시켜 볼 때,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자연지명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열운 / 열은'은 동사의 관형사형으로 보이며, 여기에 명사파생접사 '-이'가 붙어서 '열운이 / 열은이'로 불린 것으로 본다. '열운 / 열은'은 동사 '열우- / 열오- (開, 結)²⁷⁾와 관련이 있고, 이때의 '열우- / 열오-'는 婚姻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개연성이 매우 크다. 결국 餘乙溫은 '열운 곳'(열 곳 혹은 맺은 곳)이란 뜻으로 붙여진 음가자가 결합한 것이 된다. 餘乙은 '열'의 온전한 표기이고, 餘乙의 乙은 생략 표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閔 / 烈은 '열'의 음가자 표기이고, 與는 乙의 생략된 餘의 다른 음가자 표기에 불과할 뿐이다. 『남사록』(1601년)에 '與溫浦'로, 『耽羅巡歷圖』(1702년), 『耽羅古地圖』(1709년), 『濟州三邑都摠地圖』(18세기?), 『濟州三縣圖』(영조시대?) 등에는 迎婚村, 迎婚浦로 표기되어 있어서, 婚과 관련되는 한자 이름을 쓰고 있다. '열운이'에 대한 한자 표기는 이외에도 많지만 대부분 '열운 / 열은'의 음가자 표기에 불과하며, 『濟州邑誌』(1780년?)내의 '旌義縣誌'에는 '與溫里'로 나타나지만, 『旌義邑誌』에 '東·西溫平里'로 표기되고 있다. 溫平으로 표기되면서 본래의 뜻인 '開, 結'(열우다 / 열오다)과는 멀어진 이름이 돼버렸다²⁸⁾

(2) 加黃伊 (덧냉이)

- ① 流來田所謂加黃伊員米粟參斗付<인동장씨 명문9(1885)> / 流來한 밭인 소위 덧냉이 지경의 쌀 세 말 부치기.
- ② 加黃伊員連墻貳庫皮牟九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덧냉이 지경의, 담이 연속된 두 곳으로 겹보리 아홉 말 부치기.

加黃伊는 지금 온평국민학교 서북쪽 난산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 성산읍 온평리 1546-1번지의 언덕 일대를 가리키는 '덧냉이'의 한자 표기이다. 마

27) 王業을 여르시니(肇開鴻業)<용가 1:2. 3>
 엇네 空華 | 여름 여로매 다르리오(何異空華結果 | 리오)<원각, 상2-3: 43>
 空華툰 어더 空애 果實을 열우러랴 ㅎ니(猶遜空華 ㅎ야 結爲空果 ㅎ니)<능엄 4:41>

28) 『白鹿語文』 2집의 溫平里 學術調查報告 '사회배경'의 설명에서, '열운이'는 '어휘형태소+문법형태소'의 구성('열-開) + '-구-'(보조어간) + '-이'(접사) : '열구'(>열우) + -ㄴ + -이))로 보고, '평평하게 열리어 있는 곳'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열구'의 '-구-'가 유음 아래에서 탈락하여 '-우-'로 변했다고 본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우-'는 중세국어의 사동접미사이기 때문에, '열다(開, 結)'의 사동사는 '열우- / 열오-'이기 때문이다.

을 토지대장에 '上加貢伊(웃덧냉이: 2077-2번지)'가 보인다. 加黃伊는 '덧냉이'의 음가자 표기인데, 한자 표기로 볼 때 당시는 '더황이 / 더왕이' 정도의 음상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이 마을에선 '淪黃伊飛來'(논황이빌레)를 '노냉이빌레'라 하고, '加黃伊'(더황이)를 '더냉이 / 덧냉이'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언어의 음운변화가 특이함을 알 수 있다.

(3) 鑑朴伊水 / 監伏其物 / 甘朴水 (감백이물 / 감박이물 / 감복이물)

- ① 矣妻分衿給田所謂鑑朴伊水員米粟陸升付<인동장씨 명문4(1878)> / 제 妻 쪽에서 분깃하여 준 밭인, 소위 감박이물 지경의 쌀 여섯 되 부치기.
- ② 所謂監伏其物北邊員稷種壹斗付只田<인동장씨 명문29(1894)> / 소위 감복이물 북쪽 지경의 기장씨 한 말 부치기의 밭.

鑑朴伊水 / 監伏伊物 / 甘朴水는 지금 성산읍 은평리 '생이물' 북쪽 2554번지의 임야 일대에 있는 '감백이물 / 감박이물 / 감복이물'의 한자 표기이다. 甘朴水는 토지대장에 보인다. 제주도방언에서 '아'와 '오'의 음운교체, 'ㅣ'모음 역행동화는 흔한 일이다. '감박이 / 감복이 / 감백이'는 '감돌아 드는 물'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오히려 표준어 '감부기'의 표기로 보인다. 근대국어에 보이는 '감보기 / 감복이'와 같은 것이다.²⁹⁾ 곧 '감부기가 많은 물'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鑑朴伊 / 監伏其 / 甘朴은 '감복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고, 物은 '물 > 물'(物 갖 물 萬物 事物<훈몽-초, 하: 1>)의 음가자 표기이다.

(4) 官田 (관전 / 관전밭)

- ① 矣買得所謂官田員伊矣季妻媳康沃旭家基代所捧田所謂上番東南邊員伊皮辭貳斗伍升付只<인동장씨 명문11(1885)> / 내가 買得한 소위 관전밭 지경의 밭, 곧 나의 작은 처남 강옥옥의 집터 대금으로 받은 밭인, 소위 웃는 동남쪽 지경의 걸보리 한 말 닷 되 부치기.

官田은 지금 성산읍 은평리 '우는못' 동쪽 561번지의 밭 일대의 '관전 / 관전밭'의 한자 표기이다. 官田을 '관전밭'으로 부르는 것은 한자어에 고유어를

29) 小麥奴 밭 감보기...小麥未熟時叢中不成麥 捻之成黑勃者是也<東醫湯液 1: 25>
麥奴 麥穗成黑黴 감복이<물명 3: 3>

덧붙이는 습성에 기인한 것이다. 官田이라 한 것은 官의 소유이거나 관에서 경작하던 밭 또는 관전 어른(장군:官)이 나는 밭이란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官의 소유이거나 官에서 경작하던 밭'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5) 廣飛來 (넙빌레)

- ① 廣飛來員皮牟拾壹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넙빌레 지경의 걸보리 열 한 말 부치기.

廣飛來는 지금의 성산읍 온평리 '화성개' 동쪽 660-1번지 일대의 임야에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너럭바위의 개(浦)인 '넙빌레'의 한자 표기이다. 토지대장에도 廣飛來가 보인다. 廣의 훈 '넙'(廣 너를 광<천자광20>)에 너럭바위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빌레'의 표기이다.

(6) 達如水 (다려물 / 도래물 / ㄷ래물)

- ① 達如水員皮牟七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다려물 지경의 걸보리 일곱 말 부치기.
 ② 達如水員皮牟四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다려물 지경의 걸보리 네 말 부치기.

達如水는 지금의 성산읍 온평리 '금봉애동산' 동쪽에 있는 샘인 '다려물 / 도래물 / ㄷ래물'의 한자 표기이다. 온평리 76-1번지 임야 일대에 있다. '다려물 / 도래물' 일대는 오래 전에 玄씨의 入鄕始祖가 살았다고 한다. '다려 / 도래 / ㄷ래'는 그 일대의 지형이 '말다래'와 같다는 데서, 또는 '돌 > 달'(月)과 같다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북군 조천읍 북촌리 앞바다에 있는 '달여도 / 다려도'의 '달여 / 다여'³⁰⁾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都路城旨 (도르성모르 / 도로성모르)

- ① 高巨濟宅前是在都路城旨南邊員牟種貳斗付只<인동장씨 명문24(1893)> / 고거제 덕 앞인 도로성모르 남쪽 지경의 보리씨 두 말 부치기.

30) 현평효(1990)는 조천읍 북촌리 앞바다에 있는 섬 이름인 '달서도, 달여도, 다레도'(獺嶼島, 獺嶼)는 '달섬'을 나타낸 표기로 보고, '달'은 고구려어 '達'(山·高的 뜻)과 같은 계열로 보았다.

都路城 旨는 지금의 성산읍 은평리 '고치밋동산' 남쪽에 있는 동산인 '도르성' / '도로성'의 한자 표기이다. 都路城은 '도르성 / 도로성'의 음가자 표기이며, 뜻은 확실하지 않다. 旨는 'ㄹ > ㄹ > 모루'의 혼독자 표기이다.

(8) 東洞 (동마을)

- ① 矣父買得衿給田所謂里東洞員伊粟種參升付<인동장씨 명문45(1908)> / 나의 아버지가 買得하여 衿給하여 준 밭인, 소위 마을 동마을 지경의 좁씨 석 되 부치기.

東洞은 지금의 성산읍 은평리 '동마을' 또는 '동동네'의 한자 표기이다. 里東洞은 마을 안의 동쪽 마을이라는 뜻이다.

(9) 斗於水 / 斗嚴水 / 斗與水 (두러물 / 두러물)

- ① 所謂斗於水北東邊員皮牟柒斗付只<인동장씨 명문20(1892)> / 소위 두어물 북동쪽 지경의 겉보리 일곱 말 부치기.
- ② 矣妻父衿給田所謂斗嚴水東邊員皮牟伍斗付只田<인동장씨 명문39(1903)> / 나의 가시아방(妻父)이 몫으로 준 밭인, 소위 두어물 동쪽 지경의 겉보리 닷 말 부치기의 밭.

斗於水 / 斗嚴水 / 斗與水는 지금의 성산읍 은평리 427번지의 묘 일대인 '두어물 / 두러물 / 두러물'의 한자 표기이다. 斗與水는 토지 대장에 보인다. '두엄 / 두럼'과 '물 > 물(水)로 분석할 수 있는데, '두럼'은 '뚜럼'(바보) 또는 '두레'(어리석은 사람)의 뜻이라는 설이 있다. 곧 '바보와 같은 형국을 한 물(水)'이라는 뜻이지만, 확실하지 않다.

(10) 馬午羅 / 馬路臥 (물오라)

- ① 馬午羅員連墟貳庫稷種壹斗貳升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물오라 지경의, 담이 연속된 두 곳으로 기장씨 한 말 두 되 부치기.

馬午羅 / 馬路臥는 지금의 성산읍 은평리 '감백이물' 북쪽 2535번지 일대의 밭인 '물우라 / 물오라 / 말후라'의 한자 표기이다. 馬路臥는 토지 대장에 보인다. 말(馬)을 가둬 두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馬午羅 / 馬路臥의 午羅 / 路臥는 음가자 표기이다. '말을 가뉘 두던 곳'이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오라 / *우라'는 몽고어 01-(攔來, 사로잡히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脈山谷 (맥산골 / 맥산이골)

- ① 脈山谷員皮牟五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맥산골 지경의 겹보리 밭 말 부치기의 밭.

脈山谷은 지금 성산읍 은평리 '배자못' 북동쪽 1622-3번지의 들 일대인 '맥산이골 / 맥산이굴'(일명 '메괴'라고도 함.)의 한자 표기이다. 토지 대장에 '멧山伊谷'이 보인다. '맥산이'는 '막산이'의 변화형이다. 원래 종(奴)으로, 남몰래 소를 잡아 먹으면서 굴 속에 숨어 살았다고 하는, 힘센 전설적 인물이다. 脈山 / 脈山伊는 '맥산이'의 음가자 표기이다. 谷은 '골'(谷 골 곡 又作 音 岳 <훈몽초, 상:2>)의 훈독자 표기이다. 이 지역에 물이 새어난다고 한다. '막산이'와 관련된 지명은 안덕면 창천리 '막산이구석'(계) 등 전도에 걸쳐 나타난다.

(12) 毛南槐 / 某南槐 (모남괘 / 모남괘)

- ① 矣祖上流來田所謂毛南槐曠西南邊員稷種壹斗付田〈인동장씨 명문5(1881)〉 / 저의 祖上으로부터 流來한 밭인, 소위 모남괘역 서남쪽 지경에 있는 기장씨 한 말 부치기의 밭.
- ② 毛南槐員稷種參升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모남괘 지경의 기장씨 석되 부치기.

毛南槐 / 某南槐는 지금 성산읍 은평리 북서쪽 2652번지의 임야 일대인 '모남괘 / 모남괘'의 한자 표기이다. 某南槐는 토지 대장에 보인다. 毛南槐 / 某南槐는 '모남괘 / 모남괘'의 음가자 표기이다. '모남괘 / 모남괘'는 은평리와 난산리 경계에 있는 바위로 된 굴(窟)을 지칭한다. '모남 / 모남'은 '모람'(말밤) > 말음: 藁)으로 보인다. 槐는 '괘'의 변음 '괴'의 음가자 표기이다.

(13) 毛雲注 / 毛乙祚 / 某恩條 (모운주 / 모을조 / 모른조)

- ① 毛雲注員連墻四庫稷種四升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모른주 지경의 담이 연속된 네 곳 기장씨 너 말 부치기.

- ② 所謂毛乙祚員稷種上下兩庫壹斗五升付只 <인동장씨 명문42(1904)> / 소위 밀을조 지경의 기장씨 위 아래 두 곳 한 말 닷 되 부치기.

毛雲注 / 毛乙祚 / 某恩條는 지금 성산읍 은평리 1912번지 임야 일대인 '무운주 / 무을조 / 무른조'의 한자 표기이다. 某恩條 / 某恩條는 토지 대장에 보인다. 현지인들이 '무른조 / 무인조'라고 부른다. '무운주 / 무을조 / 무른조'는 '모든게 무루었다(황폐하다)' 곧, '거칠고 조악한 땅'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 하나, 확실하지 않다. 毛雲注 / 毛乙祚 / 某恩條 / 某恩條는 모두 음가자 표기이다.

(14) 府拒永 (부거영)

- ① 田所謂府拒永北邊員皮牟柒斗付只 <인동장씨 명문2(1852)> / 밭, 소위 부거영 북쪽 지경 걸보리 일곱 말 부치기의 밭.

府拒永은 은평리 648번지 일대에 있는 '부개늪'의 다른 이름인 '부거영'의 한자 표기이다. 府拒永은 '부거영'의 음가자 표기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지금 '부개늪'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 지역이다. 제주시 봉개동의 '부개굴', 한림읍 한림리와 대림리의 '부개못'의 '부개'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개'는 '부게'를 지칭하는지 모른다. '부게'는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에 넣고 둥그스럼하게 엮어 올리되 아가리를 손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줄이고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먹등구미'를 말하는 제주도방언이다. 永(영)은 '물'(水)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15) 上畚 / 上畚童山 (웃논 / 웃논동산)

- ① 矣買得所謂官田員伊矣季妻 康沃旭家基代所捧田所謂上畚東南邊員伊皮肆貳斗伍升付只 <인동장씨 명문11(1885)> / 내가 買得한 소위 관전밭 지경의 밭, 곧 나의 작은 처남 강옥옥의 집터 대금으로 받은 밭인, 소위 웃논 동남쪽 지경의 걸보리 한 말 닷 되 부치기의 밭.
- ② 矣買得是在上畚東南邊員皮牟壹斗伍升付只 <인동장씨 명문13(1886)> / 내가 매득한 밭인, 소위 웃논 동남쪽 지경의 걸보리 한 말 닷 되 부치기.
- ③ 矣祖上衿給是在矣父家基田上畚童山東邊員米牟壹斗付只 <인동장씨 명문36(1899)> / 내 조상이 깃급한, 내 아버지 집터앗인, 웃논동산 동쪽 지경의 밭보리 한 말 부치기의 밭.

- ④ 謂上番童山南邊員草家三間查鞭及基地米半壹斗五升付<인동장씨 명문37 (1900)> / 소위 웃논동산 지경의 초가 세 칸 한 편 및 터왓 쌀 한 말 닷 되 부치기.
- ⑤ 矣父主掃祭田所謂里內上番童山西邊員皮半柴斗付只田<인동장씨 명문45 (1908)> / 제 아버지의 掃祭田인, 소위 마을 안 웃논동산 서변 지경의 걸 보리 일곱 말 부치기의 밭.

上番 / 上番童山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537번지 일대인 '웃논' 또는 '상답' 과 그 일대에 있는 동산 '웃논동산' 또는 '상답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옛날 이 지역에 논이 있었다고 한다. 上番은 '웃논'의 훈독자 표기이며, 지금은 한 자음 '상답' 또는 '상답동산'으로 부르고 있다.

(16) 西近槐 (석은괘)

- ① 西近槐員皮半四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석은괘 지경의 걸보리 네 말 부치기.
- ② 西近槐員皮半五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석은괘 지경의 걸보리 닷 말 부치기.

西近槐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배자못' 북서쪽 2067-1번지에 있는 입야 일대인 '석은괘'의 한자 표기이다. 西近은 표준어 '씩-'의 고행인 '석-'(廣 서글 부<훈몽초, 하: 6>, 朽 서글 후<애어, 하: 29>)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석은'의 음가자 표기이다. 槐은 '괘'의 변형 '괘'의 음가자 표기인데, '괘'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리워지고, 땅속으로 깊숙하게 패이여 들어간 굴'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17) 西泉木 / 西川目 (서천목)

- ① 矣身父任前買得田所謂西泉木東邊員伊<인동장씨 명문30(1894)> / 이몸의 아버지에게서 買得한 밭인, 소위 서천목 동쪽 지경
- ② 溫平西川目員田價拾兩擗上<인동장씨 명문55(1887)> / 온평리 서천목 지경의 밭의 값으로 열 냇을 받고

西泉木 / 西川目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666-2번지 밭 일대인 '서천목'의 한자 표기이다. 西泉木 / 西川木은 '서천목'의 음가자 표기이다. '西川 / 西泉'은 '섯내'(776-1번지 일대에 있는 내)의 한자 표기이고, 目 / 木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중요한 길의 좁은 입구'란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목'의 음가자 표기이다. 곧 '섯내로 들어가는 길목'이란 뜻이다.

(18) 石水童山 (석수동산)

- ① 矣父主衿下田所謂石水童山南邊員皮牟參斗付只田<인동장씨 명문43(1905)> / 나의 아버지가 몫으로 내려준 밭인, 소위 석수동산 남변 지경의 걸보리 세 말 부처기의 밭.

石水童山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440-2번지 묘 일대인 '석수동산'(혹은 '돌쟁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이 일대는 일제시대 때 길을 만들면서 돌을 깨어 냈기 때문에 '돌 깨던 동산'(줄여서 '돌쟁동산') 또는 '석수(石手)동산'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石水는 石手의 誤記로 보인다.

(19) 松木田 (소남밭 / 소남밭)

- ① 里內松木田員皮牟四斗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마을 안 소남밭 지경의 걸보리 네 말 부처기.

松木田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진생이' 남쪽에 있는 밭인 '소남밭 / 소남밭'의 한자 표기이다. 松木은 '솔남 > 소남, 소남(소나무)의 혼독자 표기이다. 소나무가 많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20) 順月 / 巡乙 (수늘)

- ① 順月員連墻三車稷種壹斗五升付<인동장씨 도허문56(1869)> / 수늘 지경, 담이 이어진 세 곳 기장씨 한 말 닷 되 부처기.

順月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채선동산' 동북쪽 1949번지 임야 일대인 '순월 / 수늘'의 한자 표기이다. 巡乙은 토지대장에 보인다. 음가자 표기이며, 藪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1) 於拒田 / 億海田 (어케왓)

- ① 矣買得田所謂於拒田西邊員稷種參升付只田<인동장씨 명문47(1908)> / 내가 買得한 밭인, 소위 어케왓 서쪽 지경의 기장씨 석 되 부처기의 밭.

於拒田 / 億海田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351번지 임야 일대인 '어케왓'의 한자 표기이다. 億海田은 토지 대장에 보인다. 於拒 / 億海는 '어케'의 음가자 표기이다. '어케'는 자갈과 돌 등이 많은 땅의 뜻으로 쓰인다.

(22) 淪潢伊飛來 (논황이빌레 / 노녕이빌레)

- ① 流來是在所謂淪潢伊飛來西北邊員稷種壹斗付只<인동장씨 명문7(1885)> / 流來한 밭인 소위 윤황이빌레 서북쪽 지경의 기장씨 한 말 부치기.

淪潢伊飛來는 지금 성산읍 온평리 '돌개(月浦)' 동쪽에 있는 '논황이빌레 / 노녕이빌레'의 한자 표기이다. 淪潢伊는 '논황이 / 윤황이'의 음가자 표기이고, 飛來는 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너럭바위의 제주도방언인 '빌레'의 음가자 표기이다. '논황이 / 노녕이'는 人名인지 확실하지 않다.

(23) 鷹旨 (매머르 > 매머르)

- ① 流來是在所謂鷹旨員伊稷壹斗升付<인동장씨 명문8(1885)> / 流來한 밭인, 소위 매머르 지경의 기장 한 말 부치기.
- ② 長兄買得是在所謂鷹旨西邊員稷種壹斗付<인동장씨 명문17(1890)> / 큰형이 買得한, 소위 매머르 서쪽 지경의 기장씨 한 말 부치기.
- ③ 矣買得田所謂鷹旨員粟種一斗付<인동장씨 명문19(1891)> / 내가 買得한 밭인, 소위 매머르 지경의 좁씨 한 말 부치기.

鷹旨는 지금 성산읍 온평리 '솔따이' 동북쪽 1809-3번지 밭 일대인 '매머르 > 매머르 > 매머루'의 한자 표기이다. 鷹旨는 '매머르'의 훈독자 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매(鷹)의 형상 또는 매(鷹)가 자주 앉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4) 長南 (장남)

- ① 長南員皮牟四斗付 <인동장씨 도허문56(1896)> / 장남 지경의 겉보리 너 말 부치기.

長南은 지금 성산읍 온평리 507-3번지 밭 일대인 '장남 / 장남드르'의 한자 표기이다. 長南은 '장남'의 음가자 표기로, '긴 나무'(長木)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25) 長童山 (진동산)

- ① 矣母長 處買得田所謂長童山員粟種柴升付只田<인동장씨 명문1(1841)> / 저의 어머니의 큰 오라비에게 買得한. 밭, 소위 진동산 지경의 좁씨 일곱 되 부처기의 밭
- ② 買得是在長童山員皮 捌斗付只<인동장씨 명문6(1884)> / 買得한 밭인 진동산 지경의 걸보리 여덟 말 부처기.

長童山은 지금 성산읍 은평리 리사무소 동남쪽 685번지 임야 일대의 진 등성이인 '진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진'은 '진'(長)의 구개음화된 음이다. 곧 동산이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³¹⁾

(26) 祭夕童山 / 祭石童山 (제석동산)

- ① 所謂矣父主買得田祭夕童山東北邊員皮牟伍斗付只田<인동장씨 명문37(1900)> / 소위 내 아버지가 買得한 밭인, 제석동산 동북쪽 지경의 걸보리 닷 말 부처기의 밭.

祭夕童山 / 祭石童山은 지금 성산읍 은평리 웃동네 북서쪽 1634번지 일대에 있는 산의 이름인 '제석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祭石童山은 토지 대장에 보인다. '제석동산'은 제주도 대부분의 자연마을마다 있는데, 帝釋神에게 풍년과 무병안녕을 비는 제석제 등의 마을 포제(醮祭)를 지내던 곳이다. 그러므로 祭夕 / 祭石 등은 帝釋의 음가자 표기라고 할 수 있다.

(27) 學古田 (학고왓 / 학구왓)

- ① 所謂學古田粟八升付只田<인동장씨 명문14(1889)> / 소위 학고왓인 좁씨 여덟 되 부처기의 밭.

學古田은 지금 성산읍 은평리에 있는 '학고왓 / 학구왓'의 한자 표기이다. 學古는 '학고'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지만, 그 뜻은 분명하지 않다.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학구왓'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學功田(학공왓?)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31) 이곳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障이 있었다는데서 유래(障童山)했다는 설도 있다.

- ② 矣相換買得田所謂學功田員粟捌升付只田<인동장씨 명문21(1893)> / 내가 相換하여 買得한 밭인, 소위 학공전 지경의 좁씨 여덟 말 부치기의 밭.

(28) 荒穡下 (황루알 / 황로알)

- ① 祖上流來田所謂荒穡下員下池田稷種壹斗付只<인동장씨 명문41(1903)> / 조상으로부터 流來한 밭, 소위 황루알 지경의 알못왓 기장씨 한 말 부치기.

荒穡下는 지금 성산읍 온평리 737-2번지 밭 앞 바닷가에 있는 ‘황로알 / 황루알’의 한자 표기이다. 옛날 고·양·부 세 신이 세 신부를 맞이했던 곳이라 하며, 지금도 평평한 바위에 밭 발자국이 찍힌 흔적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 결과 신빙성은 없다. ‘알’은 ‘下’의 뜻인 제주도방언이고, ‘황루 / 황로’는 뜻이 확실하지 않다.

6. 증문 지경 (색달 · 대포 포함)

(1) 家代田 / 家岱田 (집터왓)

- ① 中文里內員家坐田麻種壹斗付只…同家代田正木壹疋代得之後<朴承元處明文(1706)> / 증문 거리 안에 있는 집터왓 보리씨 한 말 부치기, … 위 집터왓을 正木 한 필에 代得한 뒤에.
- ② 勢不得已外邊祖上流來家岱田則矣妹衣家居生是如可<高允重處明文(1714)> / 하는 수 없이 외가 쪽 祖上으로부터 유래한 집터왓에서 저의 누이가 집을 얻어 살다가

家代田 / 家岱田은 지금 서귀포시 증문동에 있는 ‘집터왓’의 한자 표기이다. 家는 ‘집’의 훈독자 표기, 岱는 ‘집터, 터’의 훈독자 표기이다. 代는 岱의 誤記로 보이지만, 고문서에서는 많이 쓰인다.

(2) 家坐田 (집아진밭)

- ① 家坐田祖上流來之田四寸奴友先處買得里內員參斗付<고재일씨 문기(?)> / 집아진밭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으로, 4촌인 사내중 友先에게서 매득한 里內 세 말 부치기.

家坐田은 ‘집터왓’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집아진밭’으로 읽을

수 있다. 곧 집이 앉아 있는 밭이란 뜻이다.

(3) 加時磊 (가시머들)

- ① 買得邊老川岳員皮牟伍斗付只…加時磊員粟種伍升付…二庫永永報給〈安脂哲處明文(1746)〉 / 買得한 벼르넛오름에 있는 걸보리 닛 말 부치기의 밭, … 가시머들 지경에 있는 좁씨 닛 되 부치기의 밭, … 두 곳을 영원히 報給하니.
- ② 價本段加時磊員粟種伍升付只…放賣爲去乎□□相處明文(1764) / 값은 가시머들 지경의 좁씨 닛 되 부치기의 밭, …을 放賣하였으니

加時磊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북서쪽, 회수동 남서쪽에 있는 들인 '가시머들'의 한자 표기이다. 加時는 '가시낭'[가시木]의 음가자 표기³²⁾이고, 磊는 '돌이 무더기로 박혀 있거나 돌담불이 많은 들 또는 그런 땅'의 뜻을 가진 제주도방언 '머들'의 혼독자 표기이다. 加時磊(가시머들)은 '가시와 가시나무, 돌무더기, 돌담불 등이 어우러져 있는 들 또는 땅'이라는 뜻이다. '머들'은 '머홀'의 변화형으로 보이며, 서귀포시 동홍동의 '가시木들', 애월읍 고성리의 '가시남머들' 등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머홀'(險, 礪)은 중세국어의 '머홀다'³³⁾의 영접사파생명사로 보인다.

(4) 開要水 (개요물 / 개여물)

- ① 妻邊衿得爲去乎開要水員番伍片合租種壹斗伍升付只〈고재일씨 문기(?)〉 / 아내 쪽에서 깃득한 개요물 논 다섯 필지를 합한 범씨 한 말 닛 되지기.

開要水는 지금 서귀포시 색달동 '당밭' 서쪽에 있는 '개여물 / 개요물'의 한자 표기이다. 開要是 '개요'의 음가자 표기이다. '개요 / 개여'는 '산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서 이루어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32) 제주도 전역에 '가시리, 가시오름, 가시나무, 가시남께, 가시木르, 가시물' 등 '가시'가 수식요소로 많이 나타난다. '가시'는 보통 '가시나무'로 이해하고 있는데, 최범훈(1983)은 '가시'가 '곶, 산술(藪)'의 뜻이라고 하였다. 물론 '가시'가 수식어로 나타나는 지명은 가시나무와 같은 잡목이 우거진 울가리키지만, '술'이란 뜻으로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33) 물건 으렌 돌히 머호러 비오 모래 힌 여호른 漫漫히 가눗다(水淸礪礪沙白灘漫漫)〈두해-중 1: 28〉 / 습을 자바 머흔 외해 울오라(挽葛上崎金)〈두해-초 6: 24〉 / 險 머홀 험〈신합, 하: 11〉

水는 '물 >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5) 廣分𪎮 (넙은들)

- ① 廣分𪎮員𪎮得田粟種參升付<都會明文(1811)> / 넙은들 지경의, 깃득한 밥
좁씨 석 되 부치기.

廣分𪎮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북쪽에 있는 '넙은들'의 한자 표기이다. 廣分은 '넙은-'의 표기로, 혼독자 + 음가자의 구성 표기이며, 𪎮은 '들'의 음독자 표기이다.

(6) 廣寺田 (넙은절왓)

- ① 祖上傳來多年耕食爲在廣寺田員粟種三斗付乙…許給爲去乎<校生李嶸前明文(1681)> / 조상으로부터 傳來하여 여러 해동안 갈아 먹던 넙은절왓 좁씨 세 말 부치기를 …許給하였으니.

廣寺田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신일주도로 북쪽, '불목당' 서쪽 일대에 있는 밭인 '넙은절왓'의 한자 표기이다. 현지인들은 '넙은절왓'으로 부르기도 한다. 廣의 혼독자 '넙'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넙은', 寺의 혼인 '절', 田의 혼인 '밭'의 결합 표기이다. 과거에 절(寺)이 있었던, 넓은 밭이란 뜻이다.

(7) 廣所只 / 廣迫只 (너버기 / 너바기 / 너베기)

- ① 價本段祖上流來大浦里西廣所只員牟種壹石付…永永放賣爲乎矣<高昶敬前明文(1776)> / 값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대포리 서 너바기의 보리씨 한 섬 부치기, …을 영원히 放賣하되.
- ② 廣迫只員高元福處買得田牟種壹石付<都會明文(1811)> / 너바기 지경의, 고원복에게서 買得한 밥 보리 한 섬 부치기.
- ② 廣迫只員高宗福處買得田牟種壹石付<都會明文(1811)> / 너버기 지경의 고종복에게서 매득한 밥 보리씨 한 섬 부치기.

廣所只 / 廣迫只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지셋개' 북서쪽, '베리넷오름'(星川峰) 남동쪽에 활전 벌어진 편더기인 '너버기 / 너바기 / 너베기'(넙은 들)의 한자 표기이다. 廣所只는 廣의 혼 '넙'(廣 너불 광<類合>(송광사본)) 所의 혼 '바'(所 바 소<訓蒙>(예산문고본)) 또는 '바'의 변이음 '버, 베', 只의 음 '기'가

결합한 형태이다. 한자음에 '버'가 없기 때문에 所(訓:바), 迫(音:박→바)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너버기'는 '너빅 + 이'의 구성으로, '*너빅'은 '넓다'는 뜻이고, '-이'는 접사이다. 서귀포시 호근동 각시바위 동쪽에 '너빅술'(넓은 술), 남원읍 신에리 '너빅동산', 한경면 청수리의 '너버울'(廣屹洞)의 '너빅'도 같은 뜻이다.

(8) 廣王厓 / 廣枉厓 (넙왕들 / 넙은왕들)

- ① 祖上流來田廣王厓員粟種三升付田庫…許給爲去乎(寡婦金氏處明文(1736)) /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넙은왕들 지경 좁씨 석 되지기의 밭 곳, …을 許給 하였으니.
- ② 賣主之養家田在於中文里所謂廣枉厓員粟種參升付只(고재일씨 문기(?)) / 賣主의 養家田은 중문리, 소위 넙은왕들 지경에 있는 것으로, 좁씨 석 되 부 치기.

廣王厓 / 廣枉厓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신일주도로에서 남쪽으로 50미터 지점, '벧귀' 북쪽에 있는 '넙왕들 / 넙은왕들'의 한자 표기이다. 과거에 넙은왕들이 있었다고 한다. 廣의 훈 '넙-' 또는 '넙-'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넙은', '왕들'의 음가자 + 음독자 구성인 '王厓 / 枉厓'이 결합한 구성이다.

(9) 改葬基 (개장터)

- ① 價本段以外家衿得是在中文里下野改葬基員牟種拾參斗付只…永永報給(李仁孫處明文(1831)) / 값은 외가에서 깃득한 중문리 알드르 개장터 지경의 밭 보리씨 열 세 말 부치기, …을 영원히 報給하니.
- ② 故氏家別給田中文里下野改葬基員牟種參拾斗付只…永永報給(高應萬處明文(1868)) / 그러므로 시가(總家?)에서 別給한 밭인 중문리 알드르 개장터 지경의 보리씨 서른 말 부치기의 밭, …을 영원히 報給하니.

改葬基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알드르'의 '개장터'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 改葬은 '고쳐서 장사를 지낸다'는 뜻으로, 移葬했던 터를 말한다.

(10) 舊家基 / 舊家代 (묵은집터 / 구가터)

- ① 里內員舊家基員南處現處買得田皮牟伍斗付只(고재일씨 문기(?)) / 里內의 묵은집터 지경은 남치현으로부터 買得한 밭 걸보리 닷 말 부치기.

- ② 資生條以家夫買得舊家代田里內員皮牟貳斗付只<고재일씨 문기(?)> / 資生條로 家夫로부터 買得한 묵은집터왓 거리 안 걸보리 두 말 부치기.

舊家基 / 舊家代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집터인 '묵은집터 / 구가터'의 한자 표기이다. '묵은집터'가 고유한 말이고, '구가터'는 한자화한 지명이다.

(11) 廣川 (넙은내 / 넙은내)

- ① 廣川番十片合五負起奴宋先<E(1726)> / 넙은내의 논 열 파니를 합한 다섯 집은 사내종 宋先이 새로 개간함.

廣川은 지금 서귀포시 예래동 남쪽에 있는, 넙은 내인 '넙은내 / 넙은내'의 한자 표기이다. 廣의 훈 '넙-'(廣 너블 광<類合>(송광사본))의 관형사형 '너븐'과 川의 훈 '내'의 결합 표기이다.

(12) 堂田 (당밭)

- ① 堂田員金召史處買得田牟種陸斗付<都會明文(1811)> / 당밭 지경의, 김조이에게서 매득한 밭 보리씨 여섯 말 부치기.

堂田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당밭'의 한자 표기이다. 혼독자 표기로 이루어져 있다.

(13) 豆入田 / 豆入乙田 / 斗入乙田 (두들왓)

- ① 豆入田員六負田<D(1726)> / 두들왓 지경의 여섯 짐의 밭.
- ② 斗入乙田員十負內<E(1726)> / 두들왓 지경의 열 짐의 밭 안에.
- ③ 豆入乙田員拾負<G(1726)> / 두들왓 지경의 열 짐의 밭.

豆入乙田 / 豆入田 / 斗入乙田은 지금의 서귀포시 상예동 1350번지 일대의 밭인 '두들왓'의 한자 표기이다. 斗 / 豆는 '두'의 음가자 표기이고, 入乙 / 入은 入의 훈 '들'(入 들 입<類合>(영장사본))의 표기, 田은 '밭'의 혼독자 표기이다. 豆入乙 / 斗入乙의 '乙'은 '두들'의 발음 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豆入 / 豆入乙 / 斗入乙은 '두둑, 언덕'을 뜻하는 '두뿔'의 변화형 '두들'의 표기이다.³⁴⁾ 『제주어사전』에 '드득'만 등재되어 있는데, '두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34) 시혹 鷺鳥를 타 하늘해 놀어놀 鶴이 두들게서 우루물 지넷노라(或驂鷺勝天

(14) 馬興洞 / 塞達 (막은골)

- ① 矣妻邊買得畚庫在於下塞達馬興洞員畚捌片租種玖升付只<고재일씨 문기(?)>
/ 저의 아내 쪽에서 買得한 논 곳 아래에 있는, 색달리 막은골 논 여덟
필지 범씨 아홉 되 부치기.
- ② 祖上流來田大靜塞達東南五老洞皮牟陸斗付只<고재일씨 문기(?)> / 조상으로
부터 유래한 밭인, 대정 색달 동남 五老洞 걸보리 여섯 말 부치기.

馬興洞 / 塞達은 지금의 서귀포시 색달리 옛 이름인 '막은골 / 마흥골'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馬興은 '막은'의 음가자 표기이고, 塞達은 '사방이 막혀 있는, 높은 곳'이란 뜻을 가진 한자어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洞은 '골'의 혼독자이다.

(15) 望田 (망밭)

- ① 望田員七負五束田<D(1726)> / 망밭 지경의 일곱 짐 닷 못의 밭.
- ② 望田員田七負五束<E(1726)> / 망밭 지경의 밭 일곱 짐 닷 못.

望田은 지금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국민학교 남쪽에 있는 '망밭'의 한자 표기이다.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망대를 세웠던 곳을 지칭하는데, 해안 마을에 대부분 '망밭'이 있었다.

(16) 卞限川 / 卞希川 (베릿내)

- ① 價本段矣母衿得是在卞限川員壹斗畚租種壹斗付只…放賣爲乎矣<姜世翼處明文(1714)> / 값은 저의 어머니가 갖득한 베릿내 지경의 한 말의 논 범씨 한 말 부치기, …을 放賣하되.
- ② 卞希川員衿得一片畚租種壹斗付<都會明文(1811)> / 베릿내 지경 갖득한 한 필지의 논 범씨 한 말 부치기.
- ③ 卞限川員畚租種一斗付<末女處衿記(1735)> / 베릿내 지경의 범씨 한 말 부치기의 논

聊作鶴鳴碑)<두해-초 8: 58> / 坡 드듸, 파 阪 드륙 판 阪者日阪 又澤障 又山 齋 亦作坂 陵 두들 똥 大阜日陵 陸 드듸, 른 高平日陸<훈몽-초, 상2> / 畝 이 령 모, 두들 골 예자 모<신합, 상: 6>
두들 양주논 臘日을 기들워 將次人 버드를 퍼리라 ㄱ다니(岸容待臘將舒柳)
<두해-중 11: 34>

卞限川 / 卞希川은 지금 중문동 남쪽에 있는 '베릿내'의 표기로 보인다. 卞限 / 卞希는 '베릿'의 음가자 표기이다. '베릿'의 '베리'는 낭떠러지의 아래가 강이나 바다로 통한 위태한 벼랑을 뜻하는 표준어 '벼루'의 제주도방언이다. '벼루'의 중세국어형은 '비러 > 비례 / 벼로'로 나타난다.³⁵⁾ 이의 제주방언형 '베릿'이 '내'와 결합하여 '베릿내'가 되고, 이것이 발음과정에서 '베린내'로, 다시 강하게 발음하는 과정에서 한자 표기 卞限 / 卞希(베리)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17) 卞奐洞 (베릿골)

- ① 卞奐洞員皮牟十八斗付〈末女處衿記(1735)〉 / 베릿골 지경의 걸보리 열 여덟 말 부치기의 밭.

卞奐洞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베릿내' 곁에 있는 '베릿골'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卞奐은 卞限 / 卞希와 같이 '베리'(벼루, 崖)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18) 俳吡園 (벧동산)

- ① 俳吡園員皮牟八斗付 〈末女處衿記(1735)〉 / 벧동산 지경의 걸보리 여덟 말 부치기의 밭.

俳吡園은 '벧동산'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배(梨)를 심었던 동산'이란 뜻인지, '햇별이 잘 들던 동산'이란 뜻인지, 아니면 '배(船)와 같은 형상을 한 동산'이란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위의 '벧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別老川岳 / 別老岳 / 邊老川岳 (벼로넣오름)

- ① 價本段妻邊祖上流來田別老川岳北邊員皮壹石付只…報給〈高萬富處明文(1767)〉 / 값은 아내 쪽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인 벼로넣오름 북변 지경의 걸보리 한 석 부치기의 밭, …을 報給하니.

35) 머브러 브터쇼미 다 비멧 이피언마룬 東西에 들볼휘 다르도다(淹薄俱崖口 東西異石根)〈두해-초 8:12〉 / 머리 도르려 비례를 바라노라(回首望兩崖)〈두해-중 6:46〉 / 岬崖 벼로…懸崖 두결흔 벼로〈한청 1:39〉

- ② 吾矣母主衿得田中文里南邊別老岳員皮牟壹斗付只<고재일씨 문기(?)> / 나의 어머니 財主가 갖득한 밭 중문리 남변 벼로오름 겹보리 한 말 부치기.
- ③ 內員皮牟肆斗付…別老岳員皮牟伍斗付…相換爲去乎<高瑞鑑前相換明文(1764)> / 마을 안 지경의 겹보리 네 말부치기의 밭, …벼로오름 지경의 겹보리 닷 말 부치기의 밭, …을 相換하였으니.
- ④ 買得邊老川岳員皮牟伍斗付只…加時磊員粟種伍升付…二庫永永報給<安詣哲處明文(1746)> / 買得한 벼로넛오름에 있는 밭 겹보리 닷 말부치기, … 가시머들에 있는 밭좁 씨 닷 되 부치기, … 두 곳을 영원히 報給하니.
- ⑤ 別老川員衿得田牟種柒斗付<都會明文(1811)> / 벼로내 지경의 갖득한 밭인 보리씨 일곱 말 부치기.

別老川岳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중심가 남쪽에 있는 '벼로넛오름 / 베릿내오름'의 한자 표기이다. 다른 표기로 邊老川岳(벼로넛오름)이 나타나고, '내(川)가 생략된 別老岳(벼로오름)의 표기도 나타난다. 別老 / 邊老是 '벼로'(벼루, 崖)의 음가자 표기이다. 『한국지명총람16』(1984)에는 '베린봉'으로 표기되어 있고, 국립지리원 발행(1994)의 1:25,000의 지도에는 '성천동(星川峰)'으로 표기되어 있다. '벼로넛오름'의 '벼로'를 '벼루'(硯)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벼루'(崖)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0) 非乙於池 (비러못)

- ① 矣外祖上流來非乙於池西邊員粟種伍升付只…別給爲有矣<高允重處明文(1699)> / 저의 외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비러못의 서쪽 밭 좁씨 닷 되 부치기, …을 別給하였으되.

非乙於池는 지금 서귀포시 색달동 남쪽에 있는 '비러못'의 한자 표기이다. 非乙於池의 乙於是 '비러'의 둘째 음절 '러'를 표기한 것으로, '비러'는 음가자의 결합이다. '비러못'은 '벼랑'은 뜻하는 중세국어 '비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⁶⁾

(21) 殯所旨 (빈소목르)

- ① 殯所旨員朴世春處買得田粟種參升付<都會明文(1811)> / 빈소목르 지경의 박세춘에게서 매득한 밭 좁씨 석 되 부치기.

36) 비러엿 푸른 소나무 고지 다희 뉘헛 숲잔은 댓싹 보미로다(崖蜜松花老 山杯竹葉春)<두해-초 21:34>

殞所³⁷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군물' 동쪽에 있는 언덕인 '빈소마르'의 한자 표기이다. '빈소마르'는 '빈소동산'이라고도 한다. 殞所는 '빈소'의 음가자 표기이다. '빈소'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旨의 훈(旨 ㅁㄹ 지<類合>(나손본)) 'ㅁㄹ'의 변이음 ㅁ르 > ㅁ루 > 모루'의 훈독자 표기이다.

(22) 塞達里田 (막은다리왓)

- ① 柳益山處買得爲在塞達里田員田牟種捌斗付…報給爲違<正兵高莫南處明文 (1690)> / 유익산에게서 買得한, 막은다리왓 지경의 밭 보리씨 여덟 말 부치기, …를 보급하고.

塞達里田은 지금의 서귀포시 색달리(穡達里)에 있는 밭인 '막은다리왓'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塞의 훈 '막'(塞 마글 식<類合>(칠장사본))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막은'과 達里(다리: '높은 곳'을 뜻하는 '달'과 접사 '-이'가 결합한 것)가 결합한 것이다. '막은다리'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막은골'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연간의 『濟州邑誌』에는 塞達里로 표기되고, 1899년의 『대정군읍지』에는 穡達里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경에는 穡達里로 改名한 것으로 보인다.

(23) 所斤童山 (쇼근동산)

- ① 矣祖上流來田所斤童山員皮牟陸斗付<고재일씨 문기(?)> / 저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인 죽은동산 겉보리 여섯 말 부치기.

所斤童山은 서귀포시 중문동 마을 안에 있는 '죽은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所近은 '죽은'(小)에 대응하는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이를 '속은'(사) 또는 '박은'(拓)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현지 지명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중세 국어에서 확인되는 '효'(小)에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효근'(효근곶 등 俗呼香橙 <훈몽초, 상: 6>)의 변화형 '쇼근'³⁷⁾에 비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童山은 '동산'의 음가자 표기이다.

(24) 所說 (소열)

37) 참조 쇼근 나라해 가물 놀라노니(類驚適小國)<두시-중, 7: 32>

- ① 所說員李永太處買得田牟種拾斗付<都會明文(1811)> / 소열 지경의 이영태에게서 買得한 밭 보리씨 열 말 부치기.

所說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북쪽, 회수동 '세커리' 서쪽에 있는 들인 '소열'의 한자 표기이다. 所說은 '소열'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며, 그 뜻은 분명하지 않다.

(25) 腮木田 (신남밭)

- ① 腮木田員奴老郎金處買得田粟種壹斗付依此施行<高昶敬處禱記(1768)> / 신남밭 지경의 사내중 老郎金에게서 매득한 밭인 좁쌀 한 말 부치기를 이에 따라 시행함.

腮木田은 서귀포시 중문동 '웃드르'에 있는 '신남밭'의 한자 표기이다. '신'의 변형 '시'의 음가자 표기이고, 木은 '남 / 냥'의 혼독자 표기이다. 田은 '밭'의 혼독자 표기이다. 木은 '신남'으로, '신나무'를 가리킨다. 곧 腮木田(신남밭)은 신나무가 있는 밭이란 뜻이다.

(26) 良老浦 / 楊老浦 (양로개)

- ① 良老浦員十二片十二負畝<D(1726)> / 양로개 지경의 열 두 파니 열 두 짐의 논.
 ② 良老浦員畝六片合起一負安愛林西水洞<E(1726)> / 양로개의 논 여섯 파니를 합한 한 짐은 안애림이 새로 경작함, 서쪽은 물골.

良老浦 / 楊老浦는 지금의 서귀포시 하예동 '큰고지' 동북쪽 바닷가에 있는 개(浦)인 '양로개'의 한자 표기이다. 현지인의 발음으로는 '양노캐'라고 한다. 良老 / 楊老是 '양로'의 음가자 표기인데, 뜻은 확실하지 않다. 浦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27) 五老洞 / 吾路穴 (오로굴 / 오로쿨)

- ① 故勢不得已組上流來田大靜塞達東南五老洞皮牟陸斗付只…放賣爲乎矣<高宗濟處明文(1794)> /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인, 대정 새달 동남쪽의 오로굴 걸보리 여섯 말 부치기의 밭, …을 放賣하되.
 ② 價本段塞達里東南五老洞員父主買得田皮牟陸斗付只…永永報給<高台伯處明文

(1833) > / 값은 색달리 동남쪽의 오로콜 지경에 있는, 아버지가 買得한 밭
 걸보리 여섯 말 부치기...를 영원히 報給하니.

- ③ 吾路穴員李萬□處買得皮牟參斗付<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오로콜 지
 경의 이만□에게서 매득한 걸보리 세 말 부치기.

五老洞 / 五路穴은 지금의 서귀포시 색달리에 있는 동네인 '오로콜 / 오로
 콜'의 한자 표기로 보인다. '오로콜 / 오로콤 / 오로코미 / 오르콤'이라는 지
 명은 대정읍 新桃里, 애월읍 光命里, 한림읍 明月里, 애월읍 高山里 등 도 전
 역에 걸쳐 있다. 五老와 五路는 '오로'(수달의 제주도방언. '지다리'라고도 함.)
 의 음가자 표기이고, 洞은 '골', 穴은 '굴'의 혼독자 표기이다. '오로 + 골/
 굴'이 결합하여 격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오로'가 많이 살거나 지
 나다니는 곳이라는 뜻이다.

(28) 於頭溫旨 (어둔모르)

- ① 祖上田於頭溫旨員粟種陸升落只<고재일씨 문기(?)> /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밭인 어둔모르 좁씨 옛 되지기.

於頭溫旨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어둔모르 / 어둔모르'의 한자 표기이
 다. 於頭溫은 '어든 / 어둔'의 음가자 표기이다. 於頭溫(어둔)은 '어둡- / 어
 듭-'(暗)³⁸⁾의 관형사형어미가 붙은 것이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큰 숲을 이루
 어 어두운 지역이었다고 한다. 북군 애월읍 봉성리에도 '어둔술'(지금은 들판
 이나 과거에는 숲이었다고 함.)이 있는데, 이때의 '어둔'도 暗과 관련이 있다.

(29) 煙臺 (연대)

- ① 價本段煙臺員皮牟壹斗付只...放賣爲去乎<高應萬處明文(1870)> / 값은 연대
 지경의 밭 걸보리 한 말 부치기, ...를 放賣하였으니

煙臺는 중문리 해안가에 위치했던 '연대 > 연대'를 가리킨다. 이 '연대'는
 왜적의 침략에 대비해 설치한 것으로, 대포리 해안가와 중문해수욕장 북쪽 동
 산에 설치되어 있었다.

38) 中夜 어드운 드래 雲霧 | 어드우면 초 어들고 = 中夜黑月에 雲霧 | 晦暝
 則復昏暗 <농업 2: 28> / 뒤 어드운 가온티 불고들 알리오 = 誰知暗
 中明 <금삼 2: 2>

(30) 念水洞 (염수굴 / 염수골)

- ① 念水洞員裕得田粟種捌合付<都會明文(1811)> / 염수굴 지경의 갖득한 밭 좁
씨 여덟 홑 부치기.

念水洞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알집동네' 서쪽에 있는 동네를 가리키는 '염수굴 / 염수골'의 한자 표기이다. '염수'는 '염소'(羴)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31) 吾造味洞 / 伍造味洞 (오줌윗골)

- ① 金承云處買得田吾造味洞東邊皮牟拾參斗付<長婦姜氏處別給(1731)> / 김승운
에게서 매득한 밭인 오줌윗골 동쪽 겉보리 열 세 말 부치기의 밭.
- ② 伍造味洞員金額彬處買得田牟種壹石參斗付<都會明文(1811)> / 오줌윗골 지
경의 김영빈에게서 買得한 밭 보리씨 한 섬 세 말 부치기.

吾造味洞 / 伍造味洞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북쪽, 색달동 우보악(牛步岳) 남쪽, '늑물이왓'(알색달) 남쪽에 있는 논인 '오줌의골 / 오줌윗골'의 한자 표기이다. 물줄기를 따라 줄줄이 논이 있는 지역으로, 물의 양이 오줌을 누는 것과 같이 많지 않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吾造味 / 伍造味는 '오조미(오줌의)'의 음가자 표기이다. '오줌 / 오줌'(小便)과 관련이 있다.³⁹ '오줌(小便) + 의 + 골(谷)'로 분석된다.

(32) 里内 (이내)

- ① 里内員舊家基員南處現處買得田皮牟伍斗付只<고재일씨 문기(?)> / 이내의 옛집터 지경은 남처현으로부터 買得한 밭 겉보리 닷 말 부치기.
- ② 中文里内員家坐田麻種壹斗付只…同家代田正木壹疋代得之後<朴承元處明文(1706)> / 중문 이내 안에 있는 집터왓 보리씨 한 말 부치기, …, 위 집터왓을 正木 한 필에 代得한 뒤에.

里内은 '마을 안'을 가리킨다. 중문리 현지조사에 의하면 주로 '이내, 이내

39) ㄷㅅ ㅅ오조매 돛가시라(溫小便 오줌 瀆之)<구간 6:27>
尿 오줌 뇨 俗稱小便·搜오줌 수 又上聲水調粉麵 便 搜 오줌 편 俗稱小便 又安也 又去聲宜也 卽也<훈몽초, 상:14~15>

(전), 이내(왓)'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리왓'이라는 말도 하고 있어서, '里内田'과 '거리왓'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리왓'보다 '里内田'이 후대의 표기로 보이며, 한자 표기가 정착한 뒤에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33) 者溫堂洞 / 長溫堂 / 長元堂洞 (자온당골 / 장온당 / 장원당골)

- ① 中文里者溫堂洞員粟種壹斗付只…別給爲去乎<高允重處別給(1697)> / 중문리 자온당골 지경의 좁씨 한 말 부치기의 밭, …을 別給하였으니.
- ② 長溫堂員衿得田二合粟種壹斗伍合付<都會明文(1811)> / 자온당 지경의 갖득 한 밭 두 곳을 합한 좁씨 한 말 닷 흙 부치기.
- ③ 長元堂洞員粟種捌合付<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장원당골 지경의 좁씨 여덟 흙 부치기의 밭.

者溫堂洞 / 長溫堂 / 長元堂洞은 모두 지금 서귀포시 대포동 '큰개' 옆 내에 있는 당(堂) 일대인 '자온당골 / 장온당 / 장원당골'의 한자 표기이다. 이 지역에서는 '장올당을'이라고도 부르며, 제주시 화북1동 선창 서남쪽에 있는 '자온당', 애월읍 하가리 동북쪽 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자온당 / 자원당'이 모두 이와 관련이 있는 당(堂)이다. '자온 / 장온 / 장원'은 신 이름(神名) 또는 지명으로 보인다.

(34) 長田 (장밭)

- ① 右藥作記事段長田員粟種捌升付…許耕食爲去乎<次妹處藥作記(1844)> / 위 업질로 기록하는 일인 죽은, 진밭 지경의 좁씨 여덟 되 부치기의 밭, …을 耕食하게 허락하였으니.

長田은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속암밭' 남쪽에 있는 긴 밭인 '장밭'의 한자 표기이다. '장밭'은 한자 표기가 정착된 뒤에 붙여진 것이고, 이전에는 '진밭'(長田)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35) 全神堂 / 前新堂 (전신당)

- ① 安先鐵處買得田全神堂員參庫合皮牟拾參斗付<長婦姜氏處別給(1731)> / 안선 철에게서 매득한 밭인 전신당 지경의 세 곳을 합한 걸보리 열 세 말 부치기의 밭.

- ② 前新堂員玄萬實處買得田牟種伍斗付〈都會明文(1811)〉 / 전신당 지경의, 현 만보에게서 買得한 밭 보리씨 닷 말 부치기.

全神堂 / 前新堂은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동그리하원' 북쪽, 색달동 '진모살' 북쪽에 있는 당(堂)인 '전신당'의 한자 표기이다. 前新은 '전신'의 음가자 표기이고, 全도 '전'의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전신당'은 당 이름이다.

(36) 正子基 / 亭子基 (정자터)

- ① 吾矣妻便衿得田正子基員粟種壹斗貳升付…相換爲矣〈(1786)〉 / 나의 아내 便에서 깃득한 정자터 지경의 좁씨 한 말 두 되 부치기의 밭, …을 相換하되.
 ② 衿得田正子基員粟種壹斗貳升付〈長婦姜氏處別給(1731)〉 / 깃득한 밭인 정자터 지경의 걸보리 한 말 두 되 부치기의 밭.
 ③ 亭子基員教浦里金穎彬處相換田粟種壹斗貳升付〈都會明文(1811)〉 / 정자터 지경의 돈개리 김영빈에게서 相換한 밭 좁씨 한 말 두 되 부치기.

正子基 / 亭子基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정자터'의 한자 표기이다. 正子是 '정자'(亭子)의 음가자 표기이다. 基는 '터'의 훈독자 표기이다.

(37) 舟貴 / 舟歸 / 背仇 (뱃귀 / 뱃구)

- ① 價本段妻邊衿得爲在舟貴員皮牟柒斗付只…放賣爲乎矣〈任致遠處明文(1741)〉 / 값은 아내 쪽에서 깃득한 뱃귀 지경의 걸보리 일곱 말 부치기의 밭, …을 放賣하되.
 ② 李世仁處買得田舟貴員皮牟柒斗付〈고재일씨 문기(?)〉 / 이세인에게서 買得한 밭 뱃귀 지경의 걸보리 일곱 말 부치기.
 ③ 舟歸員金南彩處買得皮牟柒斗付〈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뱃귀 지경의 김남채에게서 매득한 걸보리 일곱 말 부치기의 밭.
 ④ 背仇員衿得田牟種柒斗付〈都會明文(1811)〉 / 뱃구 지경의 깃득한 밭 보리씨 일곱 말 부치기.

舟貴 / 舟歸 / 背仇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원동산' 서쪽에 있는 '뱃귀 / 뱃귀'의 한자 표기이다. '배'(船)의 제주도방언은 '배'이다. '배'(船)의 훈차자 '舟', 그리고 음가자 背에, '귀'의 음가자 '貴'와 '仇'가 각각 결합한 표기이다. 『한국지명총람 16』(1984)에는 '벼귀가름, 벼꾸'로 표기되어 있다. 이때의 '뱃 / 뱃'은 '배(船)'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뱃(陽)'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梨’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배’(船)보다는 ‘햇’(陽) 또는 ‘배’(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俳叱園’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8) 獐水 (노리물)

- ① 獐水員四負田(D(1726)) / 노리물 지경의 네 집의 밭.
- ② 獐水員田四負(E(1726)) / 노리물 지경의 네 집의 밭.

獐水는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의 ‘당남세미’ 남쪽 1500번지 일대에 있는 물인 ‘노리물’(노루물)의 한자 표기이다. 獐의 훈 ‘노르 / 노로’(獐 노르 장<훈몽초, 상:10>, 노로 爲獐<훈민-원, 해례:24>)의 제주방언 ‘노리’와 水의 훈 ‘물’> 물’의 훈독자 표기이다. ‘노리물’이라는 지명은 제주 전역에 많이 있는데, 한자 표기와 마찬가지로 노루(獐)들이 먹었던 물이라는 데서 연유한 것인지, ‘느리’(降)에서 연유한 ‘느리는 물’(내리는 물)이라는 뜻인지 확실하지 않다. 전자를 정설처럼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9) 赤田 (작왓 / 작밭)

- ① 赤田員七負田(D(1726)) / 작밭 지경의 일곱 집의 밭.

赤田은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의 ‘족다리’ 동남쪽 700번지 일대에 있는 밭인 ‘작왓 / 작밭’의 한자 표기이다. 赤은 음 ‘적’(赤 불글 저<類合>(칠장사본))의 유사음 ‘작’의 음가자 표기이고, 田은 훈 ‘밭’(田 받 던<百聯抄解 28>, 밭 던<類合>(영장사본))의 훈독자 표기이다. 흙이 붉다는 뜻으로 赤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40) 亭子木田 (정자남밭)

- ① 亭子木田員田十負(E(1726)) / 정자남밭 지경의 밭 열 집.

亭子木田은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허문목이’ 동남쪽 600번지 일대에 있는 밭인 ‘정자남밭’의 한자 표기이다. 亭子是 ‘정자’의 음독자 표기이고, 木의 훈⁴⁰⁾

40) 남긋버스슬 소오매빠(木耳 남기버섯 綿囊) <구간 6:5>

'남'과 田의 훈 '밭'의 혼독자 표기이다. '정자남'은 집 근처나 길가, 동리 마당, 밭 같은 곳에 있는 큰나무(그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쉴 수 있음.)인 '정자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41) 造明水 (조명물)

- ① 造明水員十一負田(D(1726)) / 조명물 지경의 열 한 짐의 밭.
- ② 造明水員二庫合田十一負內(E(1726)) / 조명물 지경의 밭 두 곳을 합한 밭 열 한 짐 안에.

造明水는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물왓동네'(水田洞) 남쪽 750번지 일대에 있는 물인 '조명물'의 한자 표기이다. '造明'은 '조명'의 음가자 표기로 보이는데, 뜻은 확실하지 않다.

(42) 足達 (족다리)

- ① 足達員番十片合五負內(E(1726)) / 족다리 지경의 논 열 파니를 합한 밭 집 안에.

足達은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조명물' 서남쪽에 있는 논 일대인 '족다리'의 한자 표기이다. '족다리'의 지형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므로, '족 + 다리(達: 高의 뜻)'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43) 池童山 / 池東山 (못동산)

- ① 矣身田庫在於中文里西邊所謂池童山員粟種壹斗付…相換爲乎矣(高瑞鑑處相換明文(1737)) / 의몸의 밭 곳인 중문리 서변 소위 못동산 지경의 좁씨 한 달 부치기의 밭, …을 相換하되.
- ② 池東山員碑愛今處買得粟種伍升付(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못동산 지경의 계집종 애금에게서 買得한 좁씨 밭 되 부치기의 밭.

池童山 / 池東山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북쪽에 있는 '못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池는 '못'의 혼독자 표기이고, 童山 / 東山은 '동산'의 음가자 표기이다.

(44) 旨乙田 (ㄹ물왓)

- ① 舅祖父掃祭田壹庫在於旨乙田員粟種壹斗參升付只<고재일씨 문기(?)> / 시할 아버지 掃祭밭 한 곳은 ㅁ를왓 지경에 있으며, 좁씨 한 말 석 되 부치기.

旨乙田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ㅁ를왓 / 모를왓’의 한자 표기이다. ‘ㅁ를’은 旨의 훈독자 표기이고, 乙은 ‘ㅁ를’의 음절 말음 표기이다. ‘ㅁ를왓’은 ‘마을의 언덕진 곳’에 있는 밭을 지칭하는데, 지역에 따라 ‘ㅁ르왓, ㅁ루왓’ 등으로 불리워진다.

(45) 斬南同山 (참남동산)

- ① 價本段斬南同山員粟種伍升付田...放賣爲去乎<李重澤前明文(1750)> / 값은 참남동산 지경의 좁씨 닷 되 부치기 밭, ...을 放賣하였으니.

斬南同山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호굴왓’ 남쪽에 있는 밭인 ‘참남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斬南은 ‘참나무’의 음가자 표기이고, 同山은 ‘동산’의 음가자 표기이다.

(46) 七日泉 (일레샘)

- ① 勢不得已七日泉員衿得田租種壹斗付只...放賣爲去乎<高瑞鑑處明文(1770)> / 하는 수 없이 일레세미 지경의 깃득한 밭 ㅁ씨 한 말부치기, ...을 放賣하였으니.
- ② 七日泉員夫時元處買得皮牟柒斗付<父田主遺言據掃墳條(1756)> / 일레세미 지경의 부시원에게서 매득한 겉보리 일곱 말 부치기의 밭.
- ③ 七日泉員衿得田粟種壹斗付<都會明文(1811)> / 일레세미 지경의 깃득한 밭인 좁씨 한 말 부치기.

七日泉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북쪽, 회수동의 남쪽에 있는 ‘일레샘 / 일레샘’의 한자 표기이다. 七日은 ‘이레’(七日)의 방언형 ‘일레 / 일레’의 한자 표기이고, 泉은 ‘심’(심 爲泉<훈민-원, 해례: 26 / 泉 심 천 <훈몽-초, 상: 3>)의 방언형 ‘샘’의 훈독자 표기이다. ‘일레샘’은 마을의 액운을 없애기 위하여 주민 모두가 이레 동안 파서 만든 ‘샘’(泉) 또는 비가 내린 다음 이레밖에 물이 안 나오는 ‘샘’이란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47) 澤園 (못동산)

- ① 價本段金本之洞其祖母基坐田壹邊價擗爲有在澤園員粟種柴升付只…放賣爲去乎<李孝積處明文(1698)> / 값은 金本之洞의 저의 할머니 基坐田 한 邊의 값을 받은 澤園 지경의 밭 좁씨 일곱 되부치기, …放賣하였으니.

澤園은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지계동산' 북쪽에 있는 동산인 '못동산'의 한자 표기이다. 澤의 훈 '못'과 園의 훈 '동산'의 훈독자 표기이다.

(48) 浦尾 (개각)

- ① 浦尾員畝二十一片合十一負(E(1726)) / 개각 지경의 논 스물 한 파니를 합한 열 한 짐.
 ② 浦尾員畝貳拾貳片拾負(G(1726)) / 개각 지경의 논 스물 두 파니 열 짐.

浦尾는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큰골'(지금의 예래천)의 남쪽 끝에 있는 '개각'의 한자 표기이다. 浦의 훈 '개'(浦 개 보<훈몽초, 상:3>)와 尾의 훈 '갈'의 제주방언 '각'의 훈독자 표기이다. '포구의 끝'이란 뜻으로 쓰였다.

(49) 下野 (알드르)

- ① 價本段以外家衿得是在中文里下野改葬基員牟種拾參斗付只…永永報給<李仁孫處明文(1831)> / 값은 외가에서 깃득한 중문리 난드르 개장터 지경의 밭 보리씨 열 세 말 부치기, …을 영원히 報給하니.

下野는 서귀포시 중문동 남쪽(바다쪽) 일대인 '알드르'의 한자 표기이다. 下의 훈 '아래'의 제주도방언의 '알'과 野의 훈 '드르'의 결합 표기이다. '알 + 드르'로 분석된다.

(50) 下里 (알막울)

- ① 下里員皮牟一石付<末女處衿記(1735)> / 알막울 지경의 걸보리 한 섬 부치기의 밭.

下里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아래쪽(남쪽)에 있는 마을인 '알막울'의 한자

41) 아츠미 오매 몰랫 그티 다 돕기니 푸른 비치 柴門에 뒀는다(朝來沒沙尾 碧色動柴門)<두해-초, 10:6>

표기이다. 下의 훈 '아래'의 제주도방언 '알' 과 里의 훈 '믄' (믄는 ㅁ술허라 <월석 17: 45>)의 변화형 '믄'의 훈독자 표기이다.

(51) 許門 (허문)

- ① 價本段黃吾里員皮牟貳斗付只…獨子員粟壹刀付只…許門員粟壹刀付只…放賣爲去乎<別監姜世翼前明文(1759)> / 값은 황오리 지경의 걸보리 두 말 부치기의 밭, … 독자 지경의 좁씨 한 되 부치기의 밭, … 허문 지경의 좁씨 한 되 부치기의 밭, …을 放賣하였으니.
- ② 許門員二庫合粟四升付<末女處禘記(1735)> / 허문 지경의 두 곳을 합한 좁씨 너 되 부치기의 밭.

許門은 지금 서귀포시 상예동 '물앗동네'(水田洞) 남쪽에 있는 '허문'의 한자 표기이다. 주위에 '허문목, 허문밭' 등이 있다. 옛날에 아무나 관아에 드나들던 문인 '허문'(許門)이 있었다고 한다.

(52) 黃吾里 (황오리)

- ① 價本段黃吾里員皮牟貳斗付只…獨子員粟壹刀付只…許門員粟壹刀付只…放賣爲去乎<別監姜世翼前明文(1759)> / 값은 황오리 지경의 걸보리 두 말 부치기의 밭, … 獨子 지경의 좁씨 한 되 부치기의 밭, … 許門 지경의 좁씨 한 되 부치기의 밭, …을 放賣하였으니

黃吾里는 지금 서귀포시 중문동 서남쪽, 하예동 '죽은코지' 서쪽에 있는 개인 '황오리'의 한자 표기이다. 하예동에선 '황오지', 사계리에선 '황우지, 황우치'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뜻은 분명하지 않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조선후기 제주지역 고문서에서 확인되는 지명 표기에 대하여, 차자표기의 특징, 수식 요소와 근간 요소의 결합관계, 지명의 뜻, 문법적·음운론적인 정보 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고문서에 나타나는 지명은 주로 한자의 음과 訓을 빌려서 표기했다. 먼저 문자체계는 크게 音讀字, 訓讀字, 音假字, 訓假字 등 네 가지 법칙을 사용하

였다. 音讀字로는 江汀(강정)의 江과 汀, 甘山(감산)의 山, 望田(망밭)의 望 등이 쓰였고, 訓讀字로는 長旨(진머리)의 長(진)과 旨(머리), 古上磊(고상머들)의 磊(머들), 內江汀(안강정)의 內(안), 馬路田(말길밭)의 馬(말)와 路(길), 田(밭), 廣水(넓은물/넓은물)의 廣(넓-)과 水(물), 浦尾(개짜)의 浦(개)와 尾(짜) 등이 쓰였다. 音假字로는 馬吃川(마홀내)의 馬와 吃, 尓希川(마릿내)의 尓와 希, 無九奄 / 無巨於未 / 無仇於尾 / 無仇尾 / 茂九尾(무구레미)의 無와 茂, 九, 仇, 巨, 於, 未, 尾, 床同木(상동남)의 床과 同, 食近旨(식근머리)의 食과 近 등이 쓰였고, 訓假字로는 加內(더내)의 加(더), 古上磊(고상머들)의 古와 上, 加時磊(가시머들)의 加와 時, 開要水(개요물 / 개여물)의 開와 要, 古介田(고개밭)의 古와 介 등이 사용되었다.

표기법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 豆入乙田 / 斗入乙田(두들밭)의 豆入乙 / 斗入乙(두들), 旨乙田(머들밭)과 같이 음절말 자음 표기로 乙(ㄷ), 廣分疋(넓은들)의 廣分(넓은), 所近童山(소근동산)의 所近(소근), 於頭溫旨(어둔머리)의 於頭溫(어둔), 西近槐(석은케)의 西近(석은) 등과 같이 관형사형어미 '-은/ㄴ'의 표기로 分 또는 近, 溫, 靑巨伊(청케)의 巨伊(케)와 같이 이중모음 표기로 伊(ㅣ), 俳叱圓(뱃동산)의 俳叱(뱃)과 같이 사이시옷 叱(ㅅ)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명 표기를 결합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泉水(세미물)과 眞木圓(참남동산), 五老洞 / 吾路穴(오로굴)과 같이 '명사 + 명사'의 구성, 馬興洞(막은굴)과 廣川(넓은내 / 넓은내), 廣分疋(넓은들), 廣王疋 / 廣枉疋(넓은왕들)과 같이 '동사어간 + 관형사형어미(-ㄴ, -ㄷ) + 명사'의 구성, 廣所只 / 廣迫只(너베기)와 같이 '동사어간(너벅-) + 명사(과생접사(-이))'의 구성, 吾造味洞 / 伍造味洞(오줌윗굴)과 같이 '명사(오줌) + 관형격조사(의) + 명사(굴)'의 구성, 廣飛來(넓빌레)와 같이 '동사어간(넓-) + 명사(빌레)'의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명 표기의 근간 요소와 수식 요소와의 관계에서, 漚伊里川 / 涯伊川(애이릿내), 乞梅(걸메), 大畚(하논), 斗入乙田(두들밭)과 같이 '고유어 + 고유어'의 구성, 改葬基(개장터)와 같이 '한자어 + 고유어'의 구성, 許門(허문), 官田(관전) 등과 같이 '한자어 + 한자어'의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명보편소는 대부분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지명보편소 앞에 붙는 수식 요소 중에 고유어로 확인된 것이 몇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斗入乙田 / 頭入乙田(두들밭)

의 '두들'은 중세국어의 '두들' (陡, 坡)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국어의 '두둑'과 같은 것으로, 제주도방언에 '두둑'과 함께 '두들'이 근대국어시기까지 쓰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성산읍 온평리의 옛이름인 '열운이 / 열온이' (餘乙溫 / 與溫)의 '열우- / 열오-'는 '開, 結'의 뜻을 가진 고유어임을 밝혔다. 乞梅(걸메)의 '걸'도 '개울, 도랑'의 뜻을 가진 중세국어의 '걸' (窺)에 대응하는 것이다. 上北只(웃부기)의 '북'도 '언덕'이나 '산'을 뜻하는 고유어일 가능성이 있다. 呑造味洞(오좁윗골)의 '오좁'도 중세국어의 '오좁(便)'에 대응하는 것이다. 鑑朴伊水 / 監伏其物(감박이물 / 감복이물)의 '감박이 / 감복이'도 현대국어의 '감부기'에 대응하는 '감보기 / 감복이'이다. 卜限川 / 卜希川(베릿내)의 '베리'는 현대국어 '벼루'(崖)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비러 > 비례 / 벼로'에 해당하는 표기이다.

〈參 考 文 獻〉

- 강영봉(1994), "제주 지방의 지명", 『새국어생활』 4-1호, 국립국어연구원.
- 강창용(1991), "18世紀 濟州 内奴婢의 土地 所有 - 濟州·大靜 無後奴婢 量案을 중심으로 -",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 고창석(1993), "朝鮮後期 濟州島 田畚文記의 研究 - 高在一氏 所藏文記를 중심으로 -", 『耽羅文化』 13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1994), "沙溪里 綾城具氏家와 그 文書", 『耽羅文化』 14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김지홍(1987), "溫平里 古文書 研究", 『耽羅文化』 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김홍식(1979), "濟州島地方의 地名에 대하여 - 특히 地名接尾辭를 중심으로 -", 『논문집』 10집, 제주대.
- (1985),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考(1)", 『논문집』 20집, 제주대.
- (1986), "濟州島地方의 地名語彙考(2)", 『논문집』 22집, 제주대.
-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송하진(1987), "제주도의 고유 지명보편소에 대하여", 『장태진박사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 아세아문화사(1983), 한국지리지총서 『邑誌』 6 (濟州道).
- 오성찬(1992), 『제주도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오창명(1993), "제주도 지명 연구사",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 이기문(1991), "三國時代의 言語 및 文字生活", 『한국사상사대계』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범훈(1980), "濟州島地名研究", 『논문집』 8집, 경기대.
- (1983), "濟州島 特殊地名에 대하여", 『한국어계통론·훈민정음연구』, 집문당.
-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 IV·제주편).
- (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허 용(1974),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평효(1990), “地名을 통해서 본 耽羅言語의 源流”, 『濟友文化』 4호, 방송
대 제주학생회.